

2022년

농식품 주력국가 심층조사

독 일

2022년 농식품 주력국가 심층조사

- 독일 -

※ 환율 : 2022년 7월 20일 매매기준율(1USD=1,304.00원, 1GBP=1,566.57원, 1EUR = 1,335.85원) 적용

목 차

I. 농식품 시장현황	3
1. 시장현황	3
2. 유통현황	10
3. 수출입현황	15
 II. 품목 심층조사	 27
1. 수출 주력 품목	27
2. 이슈 및 유망품목	59
 III. 진출전략	 64
1. 시장분석	64
2. 한국산 농식품 진출전략	66

I. 농식품 시장현황

1. 시장현황

가. 농업규모

□ 2021년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GVA¹⁾)는 295억 9,200만 유로(한화 약 39조 7,569억 원)로 전년 대비 19.5% 증가

- 2021년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 비중은 0.9%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
- 독일 전체 총부가가치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0.8~0.9% 수준을 유지

〈독일 농업 부문 총부가가치(GVA) 및 비중(2017~2021)〉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GVA	전체	2,944,074	3,035,165	3,130,661	3,050,322	3,226,339	5.8	2.3
	농업 ¹⁾	27,828	23,205	27,057	24,762	29,592	19.5	1.5
	비중	0.9	0.8	0.9	0.8	0.9	-	-

* 주1) 농업, 임업, 어업의 합산치

* 출처 : 독일 통계청(2022-05-30 기준)

□ 2020년(최신자료) 농업 총 생산가치는 536억 1,000만 유로(한화 약 72조 325억 원)로 전년 대비 3.8% 감소

- 최근 5년간 독일의 농업 생산가치는 증감을 반복하며 연평균 1.8%로 소폭의 성장세를 보임

〈독일 농업 생산가치(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52,520	57,550	53,540	58,530	56,310	△3.8	1.8

* 주 : 조사 시점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최신 통계수치(2020년)를 기준으로 작성

* 출처 : Statista(2022-05-30 기준)

1) Gross Value Added

나. 시장현황

□ 2021년 독일 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2,17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285조 3억 원)로 집계

- 이 중 신선식품 시장 비중이 68.2%에 달하는 1,48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94조 4,371억 원)로 전년 대비 10.7% 증가
 - 전체 신선식품 시장 중 육류 시장규모가 3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유제품 및 난류(24.4%), 채소류(18.2%), 과일 및 견과류(14.9%), 유지류(4.4%)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689억 7,000만 달러(한화 약 90조 5,231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31.8%를 차지
 - 전체 가공식품 시장 중 빵 및 시리얼류 시장 비중이 45.1%로 절반에 달하는 수준을 차지하며, 뒤이어 과자 및 스낵류(29.0%), 간편식품(13.9%), 소스 및 향신료(8.5%), 스프레드 및 당류(3.5%) 순으로 나타남
 - 품목별 시장규모는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나, 그 중에서도 간편식품 시장의 시장 성장률이 전년 대비 11.1%, 최근 5년간 6.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독일 식품 시장규모(2017~2021)>

(단위 : 10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식품시장(전체)		173.13	191.76	186.94	196.20	217.11	100.0	10.7	5.8
신선식품	신선식품 계	117.81	130.53	127.36	133.81	148.12	68.2	10.7	5.9
	- 육류	38.46	42.66	41.66	43.89	48.64	32.8	10.8	6.0
	- 유제품 및 난류	28.87	31.92	31.13	32.69	36.16	24.4	10.6	5.8
	- 채소류	21.49	23.82	23.23	24.37	26.96	18.2	10.6	5.8
	- 과일 및 견과류	17.56	19.46	18.99	19.92	22.04	14.9	10.6	5.8
	- 수산물	6.30	6.97	6.79	7.10	7.85	5.3	10.6	5.7
	- 유지류	5.13	5.70	5.56	5.84	6.47	4.4	10.8	6.0
가공식품	가공식품 계	55.33	61.22	59.63	62.43	68.97	31.8	10.5	5.7
	- 빵 및 시리얼류	25.03	27.67	26.93	28.18	31.11	45.1	10.4	5.6
	- 과자 및 스낵류	15.90	17.62	17.20	18.05	19.99	29.0	10.7	5.9
	- 간편식품	7.52	8.37	8.20	8.63	9.59	13.9	11.1	6.3
	- 소스 및 향신료	4.80	5.29	5.13	5.34	5.87	8.5	9.9	5.2
	- 스프레드 및 당류	2.08	2.27	2.17	2.23	2.41	3.5	8.1	3.8

* 출처 : Statista(2022-05-31 기준)

다. 소비현황

□ 2021년 기준 1인당 식품 소비액은 2,587달러(한화 약 340만 원)로 전년 대비 10.5% 증가

- 신선식품의 연간 1인당 소비액은 1,765.34달러(한화 약 230만 원)로 집계
 - 이 중 육류 소비규모가 1인당 580달러(한화 약 76만 원)로 가장 높고, 뒤이어 유제품 및 난류 431달러(한화 약 57만 원), 채소류 321달러(한화 약 42만 원), 과일 및 견과류 263달러(한화 약 35만 원), 유지류 77달러(한화 약 10만 원)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의 연간 1인당 소비액은 822달러(한화 약 108만 원)로 집계
 - 빵 및 시리얼류 부문의 1인당 소비액이 371달러(한화 약 49만 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뒤이어 과자 및 스낵류 238달러(한화 약 31만 원), 간편식품 114달러(한화 약 15만 원), 소스 및 향신료 70달러(한화 약 9만 원), 스프레드 및 당류 29달러(한화 약 4만 원) 순으로 나타남

〈독일 1인당 식품 소비규모(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식품시장(전체)		2,094.72	2,307.00	2,238.90	2,342.28	2,587.05	100.0	10.5	5.4
신선식품	신선식품 계	1,425.10	1,570.22	1,524.85	1,597.00	1,765.34	68.2	10.5	5.5
	- 육류	465.20	513.20	498.80	523.80	579.70	22.4	10.7	5.7
	- 유제품 및 난류	349.20	384.10	372.70	390.20	430.90	16.7	10.4	5.4
	- 채소류	260.00	286.50	278.20	290.80	321.40	12.4	10.5	5.4
	- 과일 및 견과류	212.40	234.10	227.30	237.70	262.70	10.2	10.5	5.5
	- 수산물	76.19	83.81	81.25	84.80	93.54	3.6	10.3	5.3
	- 유지류	62.11	68.51	66.60	69.70	77.10	3.0	10.6	5.6
가공식품	가공식품 계	669.53	736.48	713.99	745.35	822.13	31.8	10.3	5.3
	- 빵 및 시리얼류	302.90	332.90	322.50	336.40	370.80	45.1	10.2	5.2
	- 과자 및 스낵류	192.30	212.00	205.90	215.50	238.30	29.0	10.6	5.5
	- 간편식품	91.03	100.70	98.19	103.10	114.30	13.9	10.9	5.9
	- 소스 및 향신료	58.08	63.60	61.38	63.76	70.02	8.5	9.8	4.8
	- 스프레드 및 당류	25.22	27.28	26.02	26.59	28.71	3.5	8.0	3.3

* 출처 : Statista(2022-05-31 기준)

□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의 식품 소비 비중이 96.9%로 대부분을 차지

- 2017년 99.2%에 달하던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의 식품 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2021년 96.9%로 2.3%p 감소
- 반면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식품 소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3.1%까지 성장
 - 이는 전년도 비중 1.9%에서 63.2%p 증가, 2017년 이후 연평균 40.3%p 증가한 수준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식품 소비 비중은 큰 폭으로 성장

<독일 유통채널별 식품 소비 비중(2017~2021)>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오프라인 유통채널	99.2	99.0	98.6	98.1	96.9	△1.2	△0.6
온라인 유통채널	0.8	1.0	1.4	1.9	3.1	63.2	40.3

* 출처 : Statista(2022-05-31 기준)

라. 소비트렌드 및 이슈

□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건강을 지향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지속

- 특히 면역력 증강을 위한 장 건강이 중요시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함유한 제품의 선호도가 증가
 -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좋아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독일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
 -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4세 이상의 독일인 중 약 1,354만 명²⁾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프로바이오틱스 유제품을 섭취했고, 이 중 약 551만 명(40.7%)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프로바이오틱스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2) 2020년 기준 14세 이상 독일 인구는 총 7,241만 명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제품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비하는 독일 소비자는 전체 인구의 약 18.7% 차지

- 유제품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함유한 독일 전통 발효 식품인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³⁾뿐만 아니라 한국의 된장과 같이 세계 각지의 발효 식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알코올 및 저알코올 주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
-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독일의 1인당 무알코올 음료 판매량은 341.58ℓ로 미국(436.81ℓ), 멕시코(400.8ℓ)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고, 독일 소비자의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지출은 2,349억 유로(한화 약 315조 5,200억 원)로, 전년 대비 3%, 최근 5년간 연평균 5% 증가

□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식품 소비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트렌드가 발생

-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대체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
- Proveg International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2021년 한 해 육류 소비를 줄였고, 3분의 1은 향후 6개월 내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를 줄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소비자들은 배양육, 마이코프로테인(mycoprotein⁴⁾) 등 새로운 생산 방식을 통한 식품 소비에도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따라서 향후 관련 시장의 확대가 전망됨
- 식품 소비 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소비 트렌드 발생
- 독일 내 소비자들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포장된 식품의 소비를 지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베이커리,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도 식재료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남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3) 잘게 썬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시큼한 맛이 나는 독일식 양배추 절임으로,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이 채소를 발효시켜 만드는 음식

4) 진균류(*Fusarium venenatum*)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육류 대체품의 원재료로 사용

□ 독일 내 아시아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독일 식품, 이탈리아 식품 다음으로 높으며,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한국 음식이 유명

- 독일의 주요 도시⁵⁾에 아시안 전문 레스토랑이 증가하는 추세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한 아시안 메뉴가 판매
- 중국식 국수, 일본식 데리야끼, 나시고랭, 춘권, 초밥, 라멘 등 다양한 아시아식 메뉴가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 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음식은 볶음밥과 볶음면, 카레, 초밥 등인 것으로 나타남

〈독일에서 인기 있는 아시안 메뉴〉



*출처: bofrost, FoodieBerlin

- 독일 내 아시아 식품은 맛이 좋고 건강한 이미지로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인기가 있음
-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아시아 식품을 가장 좋아하는 독일 소비자의 연령대는 30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이들 소비자 중 아시아 식품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8%에 달해 다른 연령층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아시안 레스토랑 방문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6% 더 높음

□ 코로나19 이후 건강 및 면역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

- 김치, 김, 비빔밥과 같은 한식은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메뉴라는 인식으로 건강과 면역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며 인기 증가

5) 함부르크, 베를린, 뒤셀도르프 등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 내 조리 수요가 증가하며 새로운 레시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 역시 한식 수요 증가에 기여
- K-콘텐츠의 확산으로 한국의 식문화가 전파되며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독일 내 아시아 식품 수입업체인 Kreyenhop & Kluge에 따르면 독일 내 한국 식품 판매량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독일 내 유명 유통채널에서는 주요 한식 레시피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도 함

<독일 유통채널에서 소개한 한식 레시피>

		
Kimchi Kimchi gilt als koreanisches Nationalgericht – und wird auch im Westen immer beliebter. Kein Wunder: Der fermentierte Chinakohl ist ein würziges Geschmackserlebnis der besonderen Art. Mit unserem Rezept machen Sie Kimchi einfach selbst. 김치 레시피	Bibimbap So genießen die Koreaner "Fastfood": Die leckere Gemüse-Hackfleisch-Bowl nach unserem Bibimbap-Rezept bereiten Sie mit Karotten, Bohnen, Pilzen sowie Rinderhack zu und krönen sie mit einem Spiegelei. Sogar Kimchi, Koreas berühmtes fermentiertes Gemüse, ist dabei. 비빔밥 레시피	Ssam Die ganze Welt der koranischen Aromen in einem Salatblatt: Mit dem Ssam-Rezept bereiten Sie diesen Klassiker aus Korea einfach zu. Auch sonst hat die Küche des ostasiatischen Landes einiges zu bieten: Jal mokgesseumnida (Guten Appetit!) 쌈 레시피

*출처: www.edeka.de

2. 유통현황

가. 유통현황 및 구조

□ 2021 오프라인 유통채널 식품시장 규모는 2,368억 8,320만 유로(한화 약 318조 1,839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5% 증가

- 현대식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2,368억 8,320만 유로(한화 약 318조 1,839억 원)로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87.5%를 차지
 - 이 중 할인점(34.7%)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뒤이어 슈퍼마켓(31.1%), 하이퍼마켓(16.8%), 포코트리테일러(4.7%), 편의점(0.2%) 순으로 나타남
- 동년 전통식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297억 1,930만 유로(한화 약 39조 9,193억 원)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시장의 12.5% 차지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7~2021)>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합계	214,853.5	220,935.6	225,449.3	240,451.6	236,883.2	100.0	△1.5	2.5
현대식 유통채널	185,333.8	191,489.7	195,882.7	210,941.6	207,163.9	87.5	△1.8	2.8
- 할인점	74,616.7	76,920.1	78,035.5	83,739.8	82,134.8	34.7	△1.9	2.4
- 슈퍼마켓	61,172.5	64,202.9	66,797.7	75,415.8	73,606.3	31.1	△2.4	4.7
- 하이퍼마켓 ³⁾	36,588.1	36,801.7	37,257.2	40,725.9	39,829.9	16.8	△2.2	2.1
- 포코트리테일러 ⁴⁾	12,266.1	12,854.9	13,060.4	10,522.5	11,043.2	4.7	4.9	△2.6
- 편의점	690.4	710.2	731.8	537.6	549.7	0.2	2.3	△5.5
전통식 유통채널	29,519.7	29,445.9	29,566.6	29,510.0	29,719.3	12.5	0.7	0.2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주3: 하이퍼마켓(Hypermarket):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

* 주4: 포코트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 출처: Euromonitor(2022)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900억 5,200만 유로(한화 약 120조 9,587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1%의 성장세를 보임

- 2021년 기준 전체 온라인 식품시장의 96.1%를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며, 홈쇼핑의 비중은 3.9%에 불과
- 전자상거래 식품시장 규모는 865억 7,160만 유로(한화 약 116조 3,072억 원)로, 전년 대비 16.1%, 연평균 14.2%의 성장률을 보임
- 홈쇼핑 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34억 8,040만 유로(한화 약 4조 6,758억 원)로, 전체 온라인 유통채널의 3.9% 차지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7~2021)>

(단위: 백만 EUR,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합계	55,006.6	59,185.3	64,263.4	78,098.0	90,052.0	100.0	15.3	13.1
- 전자상거래	50,869.4	55,523.9	60,859.8	74,571.5	86,571.6	96.1	16.1	14.2
- 홈쇼핑	4,137.2	3,661.4	3,403.6	3,526.5	3,480.4	3.9	△1.3	△4.2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Euromonitor(2022)

나. 유통채널현황(온 · 오프라인)

□ 2021년 기준 현대식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2,368억 유로(한화 약 318조 1,36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1.5% 하락함

- 독일의 주요 할인점 브랜드는 점차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 Lidl은 매장 내 혼잡도를 알려주는 whatsapp 챗봇을 출시하여 고객에게 편안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며, Netto는 계산대 없는 pick&go 서비스를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을 최소화

〈주요 할인점 브랜드〉

매장명	Aldi süd	Lidl	Netto
사진			
설립연도	1946년	1932년	1981년
점유율	5.7%	4.0%	6.0%

* 출처: Euromonitor(2022),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편의점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을 오픈해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

〈주요 편의점 브랜드〉

매장명	SPAR express	Rewe to go	DB service store
사진			
설립연도	1932년	1927년	1999년
점유율	6.0%	6.0%	-

* 출처: Euromonitor(2022),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슈퍼마켓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
 - Rewe와 Edeka는 자사 앱을 통한 식료품 주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 슈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Rewe	Edeka	tegut
사진			
설립연도	1927년	1898년	1947년
점유율	6.0%	6.0%	-

* 출처: Euromonitor(2022),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주요 하이퍼마켓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운영 전략을 취함
 - Kaufland는 2020년 대형 식료품 브랜드 Real을 인수하며 매장을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Real의 기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

〈주요 하이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Globus	Norma	Kaufland
사진			
설립연도	1953년	2006년	1984년
점유율	0.7%	0.7%	3.5%

* 출처: Euromonitor(2022),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액이 감소한 포코트리테일러에서는 24시간 운영 및 주말 운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침

〈주요 포코트리테일러 브랜드〉

매장명	Rewe to go	Spar express
사진		
설립연도	1927년	1953년
점유율	6.0%	-

* 출처: Euromonitor(2022), 해당 업체 홈페이지

□ 2021년 기준 전통식 유통채널의 점포 수는 5만 5,890개로 전년 대비 1.7% 감소

〈주요 전통식 유통채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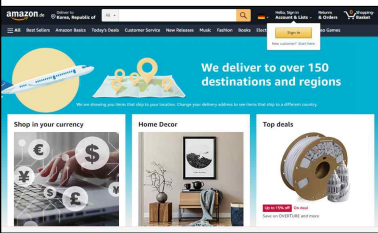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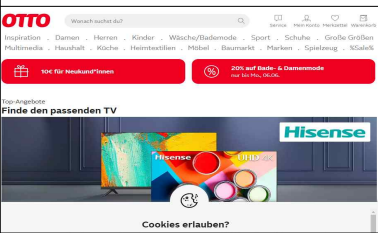
매장명	Kleinmarkthalle	Wochenmarkt Winterfeldtplatz
사진		

* 출처: Euromonitor(2022), 해당 업체 홈페이지

□ 2021년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900억 5,200만 유로(한화 약 120조 9,831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1%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 전자상거래 채널은 click-and-collect⁶⁾ 서비스에 무인 보관함 서비스를 접목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
-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증가하자 배송업체인 DHL은 2023년까지 무인 보관함을 1만 5,000개로 확대할 계획

〈주요 전자상거래 브랜드〉

매장명	Amazon	Otto	eBay
사진			
설립연도	1908년	1949년	2002년
점유율	2.2%	1.0%	1.6%

* 출처: Euromonitor(2022),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홈쇼핑은 어플리케이션 기반 커머스로 변화를 가속하며 젊은 소비자의 유입을 도모
- HSN와 QVC는 전자상거래와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음

〈주요 홈쇼핑 브랜드〉

매장명	HSN (Qurate Retail Inc)	HSE24 (Home shopping Europe GmbH)	QVC (Qurate Retail Inc)
사진			
설립연도	1982년	1995년	1991년

* 출처: Euromonitor(2022), 해당 업체 홈페이지

6) 온라인으로 집에서 주문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방식

3. 수출입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현황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672억 8,497만 달러(한화 약 88조 3,249억 원)로 전년 대비 11.7% 증가

-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14.0%), 프랑스(8.9%), 이탈리아(7.3%)로 전년 대비 모두 수출 증가세를 보임
 - 네덜란드로의 수출액은 94억 3,426만 달러(한화 약 12조 3,844억 원)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고, 프랑스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60억 424만 달러(한화 약 7조 8,836억 원), 이탈리아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49억 1,381만 달러(한화 약 6조 4,518억 원)로 집계
- 對한국 수출액은 4억 7,407만 달러(한화 약 6,225억 원)로 201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3.2% 증가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전체	58,422,267	60,932,073	59,342,974	60,216,643	67,284,967	100.0	11.7	3.6
1 네덜란드	7,700,421	7,776,707	7,457,333	8,113,238	9,434,264	14.0	16.3	5.2
2 프랑스	5,211,630	5,761,975	5,531,367	5,477,972	6,004,241	8.9	9.6	3.6
3 이탈리아	4,965,695	5,143,933	4,684,282	4,293,762	4,913,808	7.3	14.4	△0.3
4 오스트리아	3,884,769	4,139,569	4,014,224	4,137,424	4,538,887	6.7	9.7	4.0
5 폴란드	3,390,459	3,490,690	3,458,498	3,720,439	4,348,064	6.5	16.9	6.4
6 영국	4,204,816	4,381,921	4,172,697	4,230,662	3,670,555	5.5	△13.2	△3.3
7 벨기에	2,962,239	2,994,991	2,739,863	2,860,113	3,511,051	5.2	22.8	4.3
8 스페인	2,652,150	2,759,745	2,705,584	2,539,444	2,816,489	4.2	10.9	1.5
9 덴마크	2,179,906	2,253,165	2,198,011	2,217,404	2,375,920	3.5	7.1	2.2
10 스위스	1,656,849	1,799,664	1,745,618	1,931,751	2,199,167	3.3	13.8	7.3
⋮								
23 대한민국	288,435	297,995	363,009	405,566	474,067	0.7	16.9	13.2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13.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 조제 식료품(6.8%), 베이커리류(4.6%), 기타 치즈(4.1%)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음료(설탕·감미료·맛·향을 첨가한 물)’와 ‘설탕과자’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20.8%와 19.6%로 크게 증가
-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과자류가 다수 포진되어 있음
 - 설탕과자(2.3%), 속을 채우지 않은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2.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1.7%)가 각각 수출 상위 6, 7, 10위에 기록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전체		58,422,267	60,932,073	59,342,974	60,216,643	67,284,967	100.0	11.7	3.6
1	기타 조제 식료품 (HS Code 2106.90)	3,374,070	3,669,496	3,724,378	4,054,000	4,574,610	6.8	12.8	7.9
2	베이커리류 (HS Code 1905.90)	2,552,984	2,813,534	2,756,173	2,912,346	3,080,622	4.6	5.8	4.8
3	기타 치즈 (HS Code 0406.90)	2,334,369	2,319,561	2,318,448	2,457,402	2,774,251	4.1	12.9	4.4
4	초콜릿·코코아 함유 기타 조제 식료품 (HS Code 1806.90)	2,079,419	2,210,656	2,148,689	2,140,446	2,321,509	3.5	8.5	2.8
5	신선 치즈 (HS Code 0406.10)	1,546,267	1,659,657	1,671,212	1,728,847	1,922,176	2.9	11.2	5.6
6	설탕과자 (HS Code 1704.90)	1,157,397	1,230,553	1,241,033	1,313,764	1,571,312	2.3	19.6	7.9
7	속을 채우지 않은 초콜릿·초콜릿 과자 (HS Code 1806.32)	1,038,248	1,097,866	1,311,919	1,321,643	1,411,451	2.1	6.8	8.0
8	맥주 (HS Code 2203.00)	1,291,051	1,378,517	1,350,889	1,288,869	1,395,649	2.1	8.3	2.0
9	설탕·감미료·맛· 향을 첨가한 물 (HS Code 2202.10)	898,681	1,013,245	1,017,104	1,046,433	1,264,433	1.9	20.8	8.9
10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초콜릿·초콜릿 과자 (HS Code 1806.31)	1,163,054	1,256,265	1,107,459	1,039,508	1,148,734	1.7	10.5	△0.3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주3: 주요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며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ITC Trademap(2022.06.13. 기준)

□ 2021년 독일 농식품 수입액은 590억 9,977만 달러(한화 약 77조 6,039억 원)로 전년 대비 9.8% 증가

-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17.3%), 이탈리아(11.2%), 폴란드(11.0%), 프랑스(8.5%), 오스트리아(6.9%)로,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54.9%에 달함
- 한국산 농식품은 전년 대비 45.7% 증가한 7,259만 9,000달러(한화 약 953억 5,879만 원)가 수입,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연평균 27.9%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전체	50,375,181	53,184,855	51,077,806	53,803,744	59,099,765	100.0	9.8	4.1
1 네덜란드	9,195,867	9,593,157	9,085,013	9,408,428	10,218,399	17.3	8.6	2.7
2 이탈리아	4,942,866	5,408,156	5,306,228	5,763,891	6,600,741	11.2	14.5	7.5
3 폴란드	4,448,563	5,126,694	5,243,222	5,961,607	6,492,402	11.0	8.9	9.9
4 프랑스	4,632,818	4,863,475	4,703,994	4,775,567	5,046,172	8.5	5.7	2.2
5 오스트리아	2,989,971	3,297,369	3,365,320	3,628,048	4,093,417	6.9	12.8	8.2
6 벨기에	2,952,950	2,969,505	2,736,866	2,801,630	3,218,830	5.4	14.9	2.2
7 스위스	1,789,944	1,920,289	1,851,705	1,957,776	1,966,201	3.3	0.4	2.4
8 덴마크	1,864,239	1,828,951	1,735,751	1,622,563	1,884,777	3.2	16.2	0.3
9 스페인	1,684,829	1,810,112	1,617,674	1,731,756	1,858,871	3.1	7.3	2.5
10 아일랜드	1,293,903	1,470,701	1,516,072	1,503,979	1,499,399	2.5	△0.3	3.8
⋮								
53 대한민국	27,091	32,431	37,158	49,825	72,599	0.1	45.7	27.9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13. 기준)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치즈(6.8%), 기타 조제 식료품(3.8%), 포도주(3.7%), 베이커리류(3.4%), 초콜릿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2.1%)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초콜릿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을 제외한 전 품목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증가
- 이 중에서도 ‘음료(설탕·감미료·맛·향을 첨가한 물)’의 수입이 전년 대비 47.6%로 크게 증가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1/20)	CAGR ²⁾ (17/21)
전체		50,375,181	53,184,855	51,077,806	53,803,744	59,099,765	100.0	9.8	4.1
1	기타 치즈 (HS Code 0406.90)	3,356,414	3,567,948	3,546,069	3,709,011	4,004,255	6.8	8.0	4.5
2	기타 조제 식료품 (HS Code 2106.90)	1,648,789	1,766,190	1,773,936	2,024,275	2,272,753	3.8	12.3	8.4
3	포도주 (HS Code 2204.21)	1,835,552	1,931,333	1,868,198	1,954,682	2,186,295	3.7	11.8	4.5
4	베이커리류 (HS Code 1905.90)	1,454,276	1,602,581	1,692,254	1,752,475	1,991,277	3.4	13.6	8.2
5	초콜릿·코코아 함유 기타 조제 식료품 (HS Code 1806.90)	1,139,797	1,243,686	1,205,003	1,218,081	1,215,496	2.1	△0.2	1.6
6	밀크와 크림 (HS Code 0402.10)	1,181,538	1,008,726	855,462	1,011,386	1,152,506	2.0	14.0	△0.6
7	설탕·감미료·맛· 향을 첨가한 물 (HS Code 2202.10)	636,262	741,953	792,306	759,943	1,121,529	1.9	47.6	15.2
8	버터 (HS Code 0405.10)	690,820	794,936	698,889	685,995	802,605	1.4	17.0	3.8
9	소시지 (HS Code 1601.00)	565,637	621,632	624,750	718,325	774,576	1.3	7.8	8.2
10	설탕과자 (HS Code 1704.90)	708,195	717,857	727,677	711,673	763,308	1.3	7.3	1.9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주3: 주요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며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ITC Trademap(2022.06.13. 기준)

나. 수출입 프로세스

단계	내용
수입 전 준비	◎ 세관등록번호(EORI) 발급 ◎ 공인경제운영인(AEO 중 1개 선택 취득) - AEO C: 세관간소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 AEO S: 보안안전인증으로 사전신고 용이 및 세관검사혜택 EORI 번호 발급 ◎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수입신고	◎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 운임보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관세가격보고서,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통관 및 검역	◎ 통관 및 검역 -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진행
관세납부 및 반출	◎ 관세납부 - 수입 관세율: 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시 면제 - 표준부가가치세율: 15~25% - 감면부가가치세율: 5~20% - 특별소비세: 담배, 주류, 석유 등

□ EU 회원국인 독일로의 수입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①수입 전 준비 → ②수입신고 → ③검사 및 검역 → ④관세 납부 → ⑤물품 반출의 순서를 따름

① 수입 전 준비

- 독일의 수입업자는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 EORI(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EORI는 EU 공동 세관등록번호로,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는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EU 회원국 세관 당국에 등록된 EORI는 전 EU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 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일반적으로 EU위원회 사이트(ec.europa.eu)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EORI 번호가 유효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함
- 신속한 수입통관 절차를 위해 독일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수입업자는 공인경제운영인(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취득이 권장
 - AEO는 수입통관 간소화를 위한 인증으로 AEO C(통관간소화인증)와 AEO S(보안·안전인증)로 분류되며, 수입업체는 이 중 1개를 취득해야 함
 - AEO C는 통관 신청 및 절차 간소화, 검역 간소화 등의 이점을 제공하며, AEO S는 통관 신청 및 절차 간소화, 세관에서의 화물 처리 우선권, 검역 간소화 등의 이점을 제공
 - 공인경제운영인 인증은 EU Trade Portal 또는 독일은 Nationla Trader Portal⁷⁾을 통해 신청함
- 수입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진행해야 함 등록해야 함
 - BTI는 적정 관세부과, 기타 수입 관련 규제 파악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정확한 관세율표상의 분류를 세관 당국에 사전에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는 제도로 그 결정은 EU 역내국에서 6년간 유효한 것으로 통용

7) <https://iaeo.zoll.de/iaeo/content.do>

② 수입신고

- 도착 전 세관에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제출
 - 적하목록에는 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위험 품목 코드 등과 같은 화물 상세 정보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등을 기재
 - 컨테이너 해상 화물은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벌크 해상 화물은 도착 2시간 전, 4시간 미만 비행은 항공기의 실제 이륙 시간까지, 4시간 이상 비행은 EU 관세 영역의 첫 번째 공항에 도착하기 최소 4시간 전, 철도 운송은 도착 1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수입신고는 서면 및 세관의 통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 수입 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 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에 제출
 - 이 때 EU 회원국의 공통 수입신고 양식인 SAD,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을 동봉해야 함

③ 통관 및 검역

-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검역을 실시하며, 세관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 현장으로 출석이 요구될 수 있음

<통관 시 제출서류>

-
-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화물상세정보(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상업송장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농식품 검역 시 EU의 동식물검역지침을 따름
 -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의 수출 시 EU의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사전 검역을 거쳐야 하며, 식물(화훼류 포함) 수출 시 경우에 따라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허가됨
 - 또한 병충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물에 한해 식물위생검역증 발급이 면제됨
- 공식적으로 對독일 수출 가능 여부가 확인된 농산물은 다음 7개 품목 77종이며, 감자, 여주, 감귤 묘목 등 3개 품목과 고위험식물류 35종은 수출 불가함

수출가능 품목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기타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튜립		
수출불가 품목	- 감자 - 감귤 묘목 - 여주		
수출불가 품목 (고위험식물)	• Acacia Mill. • Acer L. • Albizia Durazz. • Alnus Mill. • Annona L. • Bauhinia L. • Berberis L. • Betula L. • Caesalpinia L. • Cassia L. • Castanea Mill. • Cornus L.	• Corylus L. • Crataegus L. • Diospyros L. • Fagus L. • Ficus carica L. • Fraxinus L. • Hamamelis L. • Jasminum L. • Juglans L. • Ligustrum L. • Lonicera L. • Malus Mill.	• Nerium L. • Persea Mill. • Populus L. • Prunus L. • Quercus L. • Robinia L. • Salix L. • Sorbus L. • Taxus L. • Tilia L. • Ulmus L.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 감귤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⁸⁾에 따라 우려병해충을 관리 및 소독처리한 후 수출되어야 함
 - 유럽연합에서 감귤류 생과실에 대해 지정한 검역병해충에는 ▲*Xanthomonas campestris*(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Cercospora angolensis* ▲*Guignardia citricarpa*(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등이 있음
 -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은 농림축산본부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하며 재배지검역을 통과해야 함
- 토마토 또한 다음의 내용이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어야 함

-
- 1) EU-Regulation 2020/1191/EC, Article 9.1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관련
 - 관련된 토마토 종자의 모주는 ToBRFV를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수행한 공적 검역에 기반해서 동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관련된 토마토 종자 또는 그 모주는 ToBRFV에 대한 공식적인 시료 채취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검사에 따라 동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았음
 - 등록된 생산지역명
 - 2) EU-Regulation 2019/2072/EC, 부록5에 기재된 미생물 관련
 -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병해충 무감염 사항을 부기
-

④ 관세 납부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보유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이 되어야 함
 - 6,000유로(한화 약 804만 원) 이하의 수출 시에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하나, 6,000유로(한화 약 804만 원) 이상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관세 납부 후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받아 물품 반출 가능
 - 선하증권 원본 및 관세 납부 영수증 발행 후 물품 반출 가능하며, 유럽 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 없음

8)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 독일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2014년 시행된 「EU식품 라벨링법」을 준수해야 함

- 동 법에서는 전반적인 식품 라벨링의 외양, 식품 광고, 영양 정보,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산지의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함
 - 라벨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최소 높이가 1.2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하며, 알코올 도수가 1.2% 이상인 경우 알코올 함량을 표시해야 함

〈라벨링 의무 표기 사항〉

• 제품명 • 제품 성분 목록 • 알레르기 항원인자 • 특정 성분의 함유량 • 순중량 •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	• 보관 방법 • 회사명 및 주소 • 원산지 • 사용법 • 도수(알코올 도수가 1.2%를 초과하는 경우) • 영양성분표
---	---

- 영양 정보의 경우 의무 및 선택 기재사항을 표기해야 함

의무 기재사항	- 열량 -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 함량
추가 기재사항 (선택 기재사항)	- 불포화지방, 폴리올,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량

- 특정 식품에는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식품별 표기 문구〉

구분	식품 분류	표기 문구
공기 충전 포장 식품	공기 충전으로 유통기한이 연장된 식품	• packaged in a protective atmosphere
감미료 함유 식품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	• with sweetener(s) • 식품명에 표기
	설탕과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	• with sugar(s) and sweetener(s) • 식품명에 표기

구분	식품 분류	표기 문구
감미료 함유 식품	아스파탐 혹은 아스파탐-아세설팜 소금을 함유한 식품	- contains aspartame(a source of phenylalanine) - contains a source of phenylalanine - 원료 표기란에 표기
	폴리올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	excessive consumption may produce laxative effects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유 식품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량이 100mg/kg 혹은 10mg/L 이상인 과자류나 음료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contains liquorice’ 표기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량이 4g/kg 이상인 과자류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contains liquorice -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 표기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이나 암모늄염 함량이 50mg/L, 300mg/L 이상인 음료 (알코올성의 경우 함량이 1.2% 이상인 음료류)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contains liquorice -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 표기
고카페인 음료 및 카페인 첨가 식품	커피, 차를 포함하는 식품으로 식품명에 표기가 되지 않은 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150mg/L를 초과하는 식품, 농축 혹은 건조 형태의 식품 중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이 150mg/L를 초과하는 식품	- High caffeine content,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 -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위의 문구 기재 - 카페인함량 표기 시 100ml 당 mg 함유량으로 표기
	생리학적 목적으로 카페인이 첨가된 식품(음료 제외)	- High caffeine content,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 -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위의 문구 기재 - 카페인함량 표기 시 100ml 당 mg 함유량으로 표기 - 식품 보충제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 라벨에 1회 섭취 시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의 양 기재

구분	식품 분류	표기 문구
특정 성분이 포함된 식품	피토스테롤, 피토스테롤 에스테롤, 피토스타놀, 또는 피토스타놀에스테르가 첨가된 식품	• ‘with added plant sterols’ or ‘with added plant stanols’ •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위의 문구 기재 • 함량 표기 시 %, g, mg당 함유량으로 표기 • the food may not be nutritionally appropriate f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5 years • 쉽게 볼 수 있게 위의 문구 기재 •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료 감시 아래에서 제품을 섭취하라는 문구 표기
냉동육, (조제품 포함) 냉동 미가공 수산물	제품이 한 번 이상 냉동된 경우 냉동된 날짜 또는 처음 냉동된 날짜 표기	

II. 품목 심층조사

1. 수출 주력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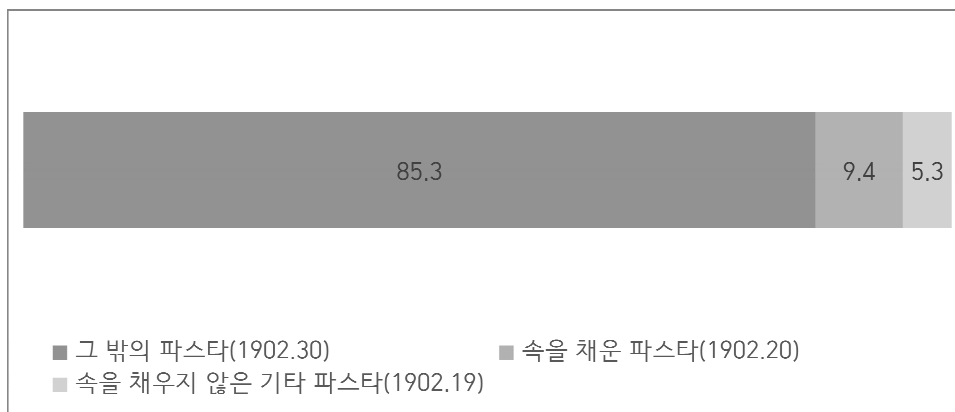
가. 한국산 수입 상위 품목

□ 2021년 독일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8,626만 6,000달러(한화 약 1,133억 2,764만 원)로 전년 대비 44.1% 증가

- 이 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85.5%를 차지하는 7,374만 2,000달러(한화 약 968억 7,487만 원)로 집계
- (파스타) 2021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4.5% 증가한 2,460만 1,000달러(한화 약 323억 1,341만 원)로 집계
 - 이 중 인스턴트 면류, 라면 등 ‘그 밖의 파스타(1902.30)’의 비중이 85.3%로 나타나며, 만두 등 ‘속을 채운 파스타(1902.20)’와 스파게티, 마카로니 등 ‘속을 채우지 않은 그 밖의 파스타(1902.19)’의 비중은 각각 9.4%와 5.3%로 집계

〈파스타 세부 품목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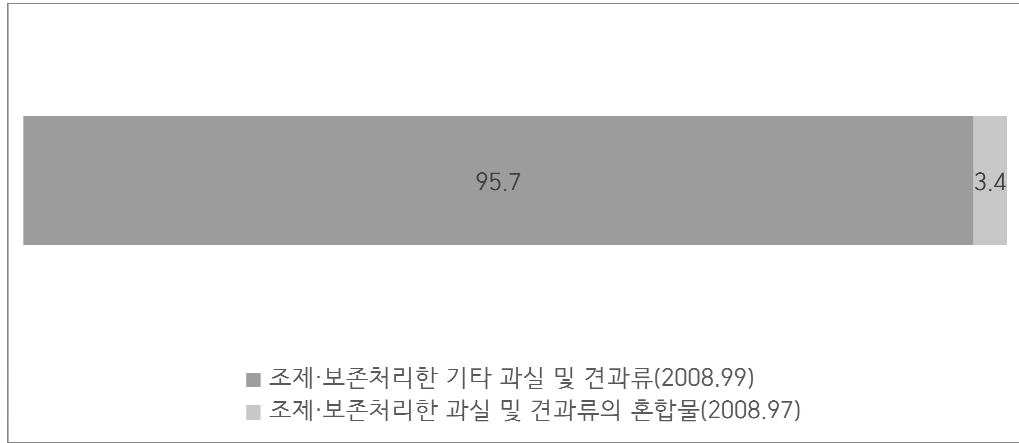


- (조제·보존처리한 과실 및 견과류) 전년 대비 74.6% 증가한 1,627만 3,000달러(한화 약 213억 7,458만 원) 규모로 수입
 - 생강, 포도, 열대과일 등의 조제품을 포함하는 ‘조제·보존처리한 기타 과실 및 견과류(2008.99)’의 비중이 전체의 95.7%에 달함

- 과실카테일, 과실 샐러드 등 ‘조제·보존처리한 과실 및 견과류의 혼합물 (2008.97)¹⁰⁾’의 비중은 3.4%로 집계

〈조제·보존처리한 과실 및 견과류 세부 품목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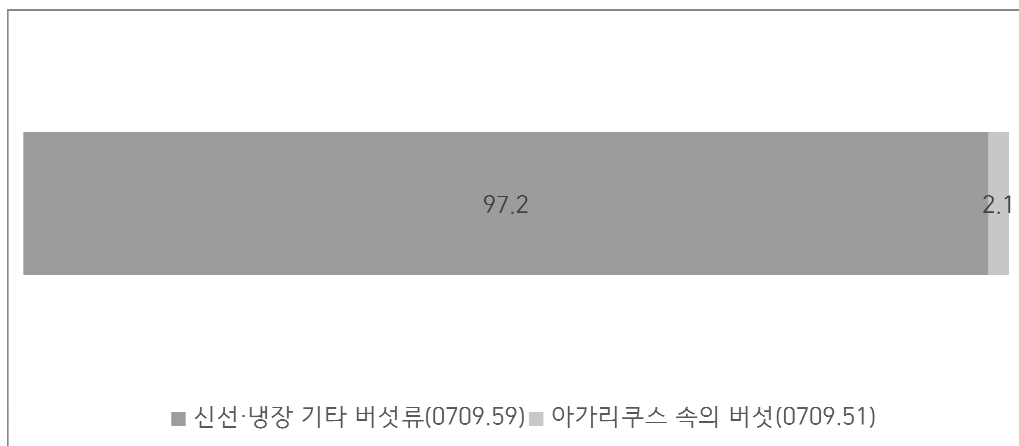


- (기타 채소류) 수입액은 753만 달러(한화 약 98억 8,614만 원)로 전년 대비 44.7% 증가

-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등 ‘신선·냉장 기타 버섯류(0709.59)¹¹⁾’의 비중이 97.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양송이버섯 등 ‘아가리쿠스 속의 버섯 (0709.51)¹²⁾’의 비중이 2.1%로 나타남

〈기타 채소류 세부 품목별 비중〉

(단위: %)



9) 생강, 포도, 열대과일, 무화과, 자두와 푸룬, 수박, 덩굴 식물 잎, 식용 해초류 등을 포함

10) 과실 카테일, 과실 샐러드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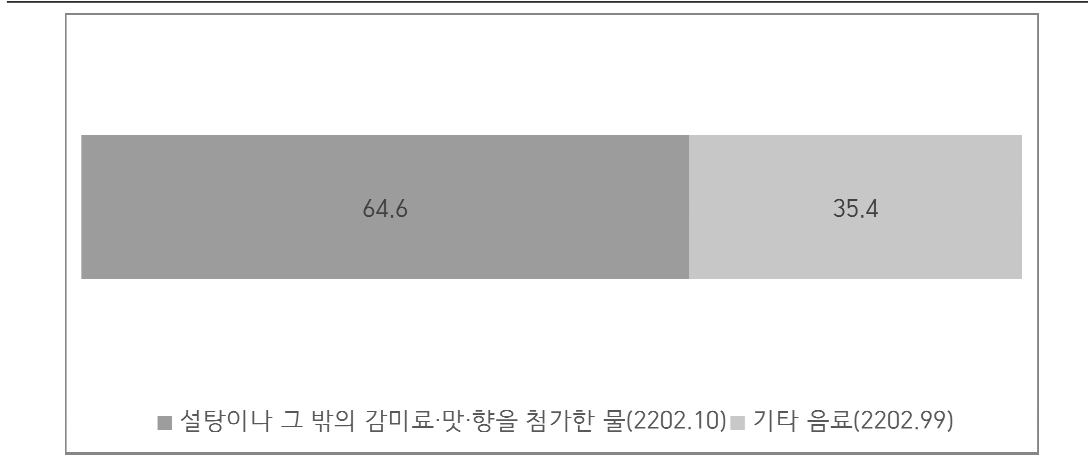
11)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을 포함

12) 양송이버섯, 기타 아가리쿠스속의 버섯을 포함

- **(음료류)** 전년 대비 49.2% 증가한 625만 4,000달러(한화 약 82억 1,088억 원) 수입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맛·향을 첨가한 물(2202.10)’의 수입 비중이 64.6%로 나타났고, 이 외 인삼음료, 과일주스 등 ‘기타 음료(2202.99)’¹³⁾의 비중은 35.4%로 집계

〈음료류 세부 품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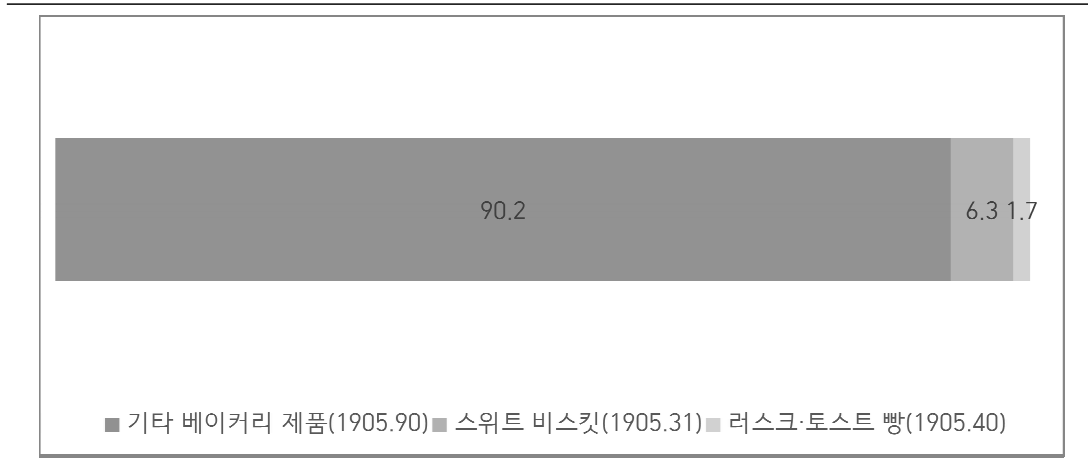
(단위: %)



- **(베이커리류)** 수입액은 428만 2,000달러(한화 약 56억 2,184만 원)로 전년 대비 49.1% 증가
 - 빵, 건빵 등 ‘기타 베이커리 제품(1905.90)’¹⁴⁾의 비중이 90.2%로 가장 높고, ‘스위트 비스킷(1905.31)’과 ‘러스크·토스트 빵(1905.40)’의 비중이 각각 6.3%와 1.7%로 나타남

〈베이커리류 세부 품목별 비중〉

(단위: %)



13) 인삼음료, 과일주스, 식혜 등이 포함

14) 빵, 건빵,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 크래커, 쌀과자, 라이스페이퍼 등이 포함

□ 독일 내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국 식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독일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한국산 농식품 수입 상위품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품목명		HS Code								
한국산 농식품 전체*			34,861	39,442	45,030	59,879	86,266	100.0	44.1	25.4
상위 10개 품목 합계			25,274	30,762	34,322	49,846	73,742	85.5	47.9	30.7
1	파스타	1902	7,040	9,935	12,144	17,027	24,601	33.4	44.5	36.7
2	조제·보존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	2008	7,363	8,722	7,122	9,319	16,273	22.1	74.6	21.9
3	기타 채소류 (신선·냉장)	0709	2,651	2,514	2,875	5,203	7,530	10.2	44.7	29.8
4	설탕·감미료·맛·향을 첨가한 물(음료류)	2202	621	787	1,414	4,191	6,254	8.5	49.2	78.1
5	베이커리류	1905	2,026	2,232	2,209	2,872	4,282	5.8	49.1	20.6
6	소스류	2103	1,676	1,906	2,064	3,269	4,012	5.4	22.7	24.4
7	기타 조제식료품	2106	1,666	1,880	3,192	3,936	3,664	5.0	-6.9	21.8
8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 (냉동하지 않은 것)	2005	648	968	1,077	1,618	2,733	3.7	68.9	43.3
9	맥아추출물 및 그 조제식료품	1901	465	609	869	1,011	2,203	3.0	117.9	47.5
10	로커스트콩·해초류 및 기타 조류·사탕무와 사탕수수 등	1212	1,118	1,209	1,356	1,400	2,190	3.0	56.4	18.3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주3: 한국산 농식품 전체: 해당 국가의 한국산 수입품목 중 HS Code 기준 02~22류(03류/05류 제외)의 합
(참고1) HS Code 03류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참고2) HS Code 05류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물(머리카락, 모(毛) 등)

* 주4: 수입 상위 10위 품목 중 조제·보존처리한 어류·캐비어·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HS Code 1604)은 수산물에 해당하므로 순위에서 제외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나. 한국산 주요 품목

(1) 김치류¹⁵⁾

□ 2021년 김치류가 포함된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2005.99)’ 수입액은 3억 5,322만 달러(한화 약 4,636억 원)로 전년 대비 0.7% 감소

-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2005.99)’ 중 김치가 포함된 ‘기타 채소류(2005.99-80)’의 비중은 48.4%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입액은 보합세(0.1% 증가)

<김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 (HS Code 2005.99)	272,267	293,485	296,109	355,866	353,224	100.0	△0.7	4.7
- 파프리카 및 캐프시컴속의 과일 (HS Code 2005.99-10)	19,819	20,448	17,974	21,503	26,787	7.6	24.6	7.0
- 서양풍조복 (HS Code 2005.99-20)	1,468	1,681	1,648	1,632	2,343	0.7	43.6	8.7
- 글로브 아티초크 (HS Code 2005.99-30)	21,800	25,665	21,243	20,229	23,252	6.6	14.9	△2.4
- 채소류의 혼합물 (HS Code 2005.99-50)	124,716	124,030	115,635	131,753	121,052	34.3	△8.1	△0.6
- 사우어크라우트 (HS Code 2005.99-60)	3,471	3,632	4,831	5,308	6,246	1.8	17.7	14.5
- 기타 (HS Code 2005.99-80)	100,701	118,029	134,778	175,441	170,935	48.4	△2.6	0.1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김치를 포함한 ‘조제·보존처리한 기타 채소류(2005.99-80)’의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21.9%), 프랑스(14.9%) 등이며, 한국산의 수입은 전년 대비 69.9% 증가
- 네덜란드산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 기타(2005.99-80)’ 수입액은 7,744만 3,000달러(한화 약 1,016억 4,394만 원)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프랑스산 수입액은 5,270만 6,000달러(한화 약 691억 7,623만 원)로 전년 대비 9.1% 감소

15) HS Code 2005.99(조제·보존처리한 채소 기타) 기준

- 한국산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 기타(2005.99-80)’ 수입액은 267만 8,000 달러(한화 약 35억 1,488만 원)로 집계

<김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 기타(HS Code 2005.99-80)	272,267	293,485	296,109	355,866	353,224	100.0	△0.7	4.7
1 네덜란드	49,228	50,410	59,366	76,462	77,443	21.9	1.3	11.3
2 프랑스	39,285	38,433	45,480	57,988	52,706	14.9	△9.1	8.2
3 이탈리아	24,876	34,743	30,229	33,918	34,442	9.8	1.5	△0.2
4 터키	26,722	27,117	24,011	30,222	28,204	8.0	△6.7	1.0
5 폴란드	8,010	11,495	14,421	28,092	25,688	7.3	△8.6	22.3
⋮								
18 대한민국	642	941	1,062	1,576	2,678	0.8	69.9	0.3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김치를 포함한 ‘조제·보존처리한 기타 채소류(2005.99-80)’의 2021년 평균 수입단가는 2.07달러(한화 약 2,717원)/kg로 전년 대비 6.0% 증가

- 주요 수입국인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수입액은 각각 1.86달러(한화 약 2,441원)/kg, 2.07달러(한화 약 2,717원)/kg로 집계
- 한국산 수입단가는 5.19달러(한화 약 6,812원)/kg로 평균 수입단가 대비 약 2배 이상 비싼 수준

<김치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전 세계	1.882	1.989	1.941	1.954	2.072	6.0	1.0
1 네덜란드	1.796	1.840	1.962	1.836	1.859	1.3	0.3
2 프랑스	1.454	1.621	1.650	1.883	2.069	9.9	6.3
3 이탈리아	2.820	3.464	3.146	2.301	2.567	11.6	△7.2
4 터키	1.679	1.589	1.513	1.621	1.615	△0.4	0.4
5 폴란드	1.431	1.734	1.886	2.634	2.475	△6.0	9.3
⋮							
18 대한민국	4.309	4.439	4.784	4.635	5.190	12.0	0.04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독일로 수입되는 김치는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 기타(2005.99-80)’에 해당되어 기본세율 17.6%가 부과

- 다만 한국산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김치 포함)는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무관세로 수입 가능

〈김치 관세율(2021년)〉

(단위: %)

구분			기본세율	한-EU FTA 협정세율
품목	HS Code	품명		
조제·보존처리한 채소 기타	2005.99-10	파프리카 및 캡시컴속의 과일	6.4%	0%
	2005.99-20	서양풍조목	16.0%	0%
	2005.99-30	글로브 아티초크	17.6%	0%
	2005.99-50	채소류의 혼합물	17.6%	0%
	2005.99-60	사우어크라우트	16.0%	0%
	2005.99-80	기타	17.6%	0%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2022.06.30. 기준)

□ 독일에서 유통되는 김치는 평균은 100g당 1.98유로(한화 약 2,659원) 수준에 판매

- (독일산) 평균 단가는 2.23유로(한화 약 2,995원)/100g로, 주로 유리병에 담겨 유통되며, 일부 독일산 김치는 포장에 비건 제품임을 강조하여 판매
- (수입산) 폴란드 및 영국에서 제조된 김치 제품이 평균 2.07유로(한화 약 2,780원)/100g에 판매
 - 독일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김치는 제품명에 spicy, mild 등으로 맵기 강도를 표시하기도 함
- (한국산) 통조림 김치가 주를 이루며, 제품 단가는 약 1.63유로(한화 약 2,189원)/100g 수준
 - 독일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김치는 배추김치 외에도 볶음 김치가 유통

<독일에서 유통되는 김치 제품>

사진		
제품명	Kimchi Vegan Mild im Glas frisch eingelegter Chinakohl für Veganer	Kultur-Kimchi vegan
원산지	독일	독일
제조사	Lee & No GmbH	fairment
제품형태	유리병 포장	유리병 포장
가격	€ 5.97 / 250g (한화 약 8,019원)	€ 6.90 / 330g (한화 약 9,268원)
100g(ml) 당 단가	€ 2.38/ 100g (한화 약 3,197원)	€ 2.09/ 100g (한화 약 2,807원)

사진			
제품명	Kimchi Classic Mild	KIMCHI DIETETYCZNE	Kimchi Spicy Karotte
원산지	폴란드	영국	폴란드
제조사	FABRYKA 111	Biogo	FABRYKA 111
제품형태	플라스틱 용기 포장	유리병 포장	유리병 포장
가격	€ 13.99 / 900g (한화 약 1만 8,791원)	€ 8.99 / 300g (한화 약 1만 2,075원)	€ 4.99 / 300g (한화 약 6,703원)
100g(ml) 당 단가	€ 1.55 / 100g (한화 약 2,082원)	€ 2.99 / 100g (한화 약 4,016원)	€ 1.66 / 100g (한화 약 2,230원)

사진			
제품명	Kimchi koreanisch eingelegter Kohl	Koreanisches Kimchi	Napa Kohl Kimchi KIM CHI
원산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조사	호산	동원	Yoaxia
제품형태	통조림	통조림	통조림
가격	€ 4.89 / 320g (한화 약 6,568원)	€ 2.49 / 160g (한화 약 3,345원)	€ 2.89 / 160g (한화 약 3,882원)
100g(ml) 당 단가	€ 1.52 / 100g (한화 약 2,042원)	€ 1.55 / 100g (한화 약 2,082원)	€ 1.80 / 100g (한화 약 2,418원)

* 출처: amazon.de, kaufland.de

(2) 소스류¹⁶⁾

□ 2021년 소스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8억 8,932만 달러(한화 약 1조 1,672억 원)로 집계

- 이 중 기타 소스류의 비중이 66.0%로 가장 높고, 뒤이어 토마토케첩(24.7%), 간장(6.7%), 겨자(2.5%)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소스류(2103.90)’ 수입액은 5억 8,731만 달러(한화 약 7,708억 4,438만 원)로 전년 대비 15.0% 증가
- ‘토마토케첩(2103.20)’ 수입액은 2억 1,952만 달러(한화 약 2,881억 원)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간장(2103.90)’과 ‘겨자(2103.30)’ 수입액 역시 전년 대비 각각 30.5%, 2.1% 증가한 5,982만 6,000달러(한화 약 785억 2,163만 원), 2,266만 3,000달러(한화 약 297억 4,519만 원)로 집계

<소스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0)	CAGR ²⁾ (17/21)
소스류 (HS Code 2103)	607,392	682,416	683,807	791,564	889,324	100.0	12.4	6.8
- 간장 (HS Code 2103.10)	33,581	36,744	37,618	45,838	59,826	6.7	30.5	13.0
- 토마토케첩 (HS Code 2103.20)	161,268	186,245	185,387	212,987	219,522	24.7	3.1	4.2
- 겨자 (HS Code 2103.30)	17,057	23,214	19,475	22,195	22,663	2.5	2.1	△0.6
- 기타 (HS Code 2103.90)	395,486	436,213	441,327	510,544	587,313	66.0	15.0	7.7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소스류 주요 수입국은 이탈리아(21.1%)로 나타나며, 이 외에도 네덜란드(6.3%), 폴란드(5.3%), 스위스(4.9%), 태국(4.7%) 등에서 수입
- 한국산 소스류의 2021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401만 2,000 달러(한화 약 52억 6,575만 원)로 집계

16) HS Code 2103(소스류) 기준

〈소스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소스류 (HS Code 2103)		607,392	682,416	683,807	791,564	889,324	100.0	12.4	6.8
1	이탈리아	154,844	182,232	189,321	233,994	252,794	21.1	8.0	8.5
2	네덜란드	126,975	154,812	133,081	152,160	187,282	6.3	23.1	4.9
3	폴란드	40,513	41,562	47,021	52,840	56,223	5.3	6.4	7.8
4	스위스	48,854	50,965	48,699	47,832	47,154	4.9	△1.4	△1.9
5	태국	24,145	26,576	27,960	30,518	43,704	4.7	43.2	13.2
⋮									
20	대한민국	1,676	1,906	2,064	3,269	4,012	0.4	22.7	0.2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2021년 평균 수입단가는 2.39달러(한화 약 3,137원)/kg로 전년 대비 9.0% 증가

- 주요 수입국인 이탈리아산 소스류의 수입단가는 2.6달러(한화 약 3,413원)/kg로 집계
 - 수입 상위 5위국 중 스위스산 소스류 수입단가가 5.05달러(한화 약 6,628원)/kg으로 가장 고가에 수입
- 한국산 소스류 수입액은 3.05달러(한화 약 4,003원)/kg로 평균 수입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통

〈소스류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소스류 (HS Code 2103)		2.055	2.152	2.051	2.190	2.387	9.0	2.6
1	이탈리아	2.340	2.516	2.295	2.451	2.595	5.9	0.8
2	네덜란드	1.542	1.628	1.610	1.728	1.861	7.7	3.4
3	폴란드	1.503	1.538	1.376	1.455	1.664	14.4	2.0
4	스위스	4.440	4.487	4.542	4.404	5.045	14.6	3.0
5	태국	1.903	2.140	2.130	2.393	2.732	14.2	6.3
⋮								
20	대한민국	2.092	2.095	2.154	2.530	3.049	20.5	0.1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독일로 수입되는 소스류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한 관세율 부과

-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 소스류의 기본세율은 최소 0%에서 최대 7.7%이며, 간장 7.7%, 토마토케첩 10.2%, 겨자 0~9.0%의 기본세율 부과
- 다만 한국산 소스류에는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전 품목 무관세로 수입 가능

〈소스류 관세율(2021년)〉

(단위: %)

구분			기본세율	한-EU FTA 협정세율
품목	HS Code	품명		
소스류	2103.10-0000	간장	7.7%	0%
	2103.20-0000	토마토케첩	10.2%	0%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0%	0%
	2103.30-9010	조제한 겨자(당 첨가율 5% 미만)	9.0%	0%
	2103.30-9090	조제한 겨자(당 첨가율 5% 이상)	9.0%	0%
	2103.90-1000	기타(액체성 망고 처트니)	0%	0%
	2103.90-3000	기타(1.5-6중량%의 용담, 향신료 및 다양한 성분과 4-10%의 설탕을 함유한 알코올 농도 44.2-49.2%의 아로마 쓴맛을 0.5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은 것)	0%	0%
	2103.90-9011	기타(건조한 중량 50%에 의해 포함하는 혼합물에서 또는 수용액에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또는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의 그 이상)	7.7%	0%
	2103.90-9019	기타(기타)	7.7%	0%
	2103.90-9081	기타(건조한 중량 50 %에 의해 포함하는 혼합물에서 또는 수용액에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또는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의 그 이상)	7.7%	0%
	2103.90-9089	기타(기타)	7.7%	0%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2022.06.30. 기준)

□ 파스타 소스 외에도 스테이크 소스, 간장, 디핑소스¹⁷⁾ 등 다양한 소스 제품이 유통되며, 한국산 소스는 주로 전통 장류 위주로 판매

- (독일산) 주로 플라스틱 통 · 유리병에 포장된 파스타용 소스가 약 3.59유로(한화 약 4,822원)/100g에 판매
 - 독일산 소스는 비건, 글루텐프리, 무방부제, 무설탕 등 건강과 관련한 식품 특성을 강조하기도 함
- (수입산)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소스류가 평균 3.00유로(한화 약 4,029원)/100ml로 판매

17) ‘찍다(dipping)’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양한 음식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의미

- (한국산) 고추장, 찜장과 같은 전통 장류가 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약 4.57유로(한화 약 6,138원)/100g 수준으로 판매
- 온라인 플랫폼 내 구매후기를 살펴본 결과 고추장은 주로 한국 요리를 만들기 위해 구매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맛있다’,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수 있다’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룸

<독일에서 유통되는 소스 제품>

사진			
제품명	Dose Rahm Soße	Sauer Fertigsauce	Süß Sauer Geschmack ohne Zuckerzusatz
원산지	독일	독일	독일
제품형태	플라스틱 용기 포장	유리병 용기 포장	유리병 용기 포장
가격	€ 19.95 / 238g (한화 약 2만 6,831원)	€ 4.29 / 325ml (한화 약 5,768원)	€ 2.98 / 395g (한화 약 4,006원)
100g(ml) 당 단가	€ 8.67 / 100g (한화 약 1만 1,657원)	€ 1.34 / 100g (한화 약 1,801원)	€ 0.76 / 100g (한화 약 1,021원)
사진			
제품명	Maple Chipotle Grille Sauce	Coco Aminos Würzsauce	Hoi Sin Sauce
원산지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제품형태	유리병 포장	유리병 포장	유리병 포장
가격	€ 15.95 / 330ml (한화 약 2만 1,445원)	€ 14.85 / 500ml (한화 약 1만 9,966원)	€ 5.50 / 455ml (한화 약 7,394원)
100g(ml) 당 단가	€ 4.83 / 100g (한화 약 6,494원)	€ 2.97 / 100g (한화 약 3,993원)	€ 1.22 / 100g (한화 약 1,640원)
사진			
제품명	Gochujang Scharfe Rote Pfefferpaste	Korean Soybean Paste Mixed with Red Pepper Paste Ssamjang	JIN S Sojasauce
원산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품형태	플라스틱 용기 포장	플라스틱 용기 포장	플라스틱 병 포장
가격	€ 6.99 / 500g (한화 약 9,398원)	€ 19.99 / 170g (한화 약 2만 6,877원)	€ 2.89 / 500ml (한화 약 3,886원)
100g(ml) 당 단가	€ 1.39 / 100g (한화 약 1,869원)	€ 11.75 / 100g (한화 약 1만 5,798원)	€ 0.58 / 100g (한화 약 779원)

* 출처: amazon.de, kaufland.de

(3) 음료류¹⁸⁾

□ 2021년 음료류 수입액은 31억 6,782만 달러(한화 약 4조 1,546억 원)로 전년 대비 12.2% 증가

- 음료 수입은 크게 ‘음료류(2202)’와 ‘과실주스(2009)’로 구분
 - ‘음료류(2202)’ 수입액은 전년 대비 28.1% 증가한 18억 2,810만 달러(한화 약 2조 3,976억 원)로 전체 음료 수입액 중 57.7% 차지
 - ‘과실주스(2209)’ 수입액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3억 3,973만 달러(한화 약 1조 7,577억 원)로 전체 음료 수입액의 42.3% 차지

<음료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음료류 계	2,598,732	2,940,280	2,755,168	2,822,996	3,167,820	100.0	12.2	1.9
음료류 (HS Code 2202)	1,073,584	1,251,882	1,343,001	1,427,345	1,828,095	57.7	28.1	9.9
과실주스 (HS Code 2009)	1,525,148	1,688,398	1,412,167	1,395,651	1,339,725	42.3	△4.0	△5.6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브라질 등에서 수입되며, 한국산 음료류 및 과실주스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음료류(2202)’의 주요 수입국은 오스트리아(44.9%)로 나타나며, 한국산 음료류는 전년 대비 49.2% 증가한 625만 4,000달러(한화 약 82억 525만 원)로 집계
 - ‘과실주스(2209)’의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25.7%), 네덜란드(16.5%), 폴란드(14.9%) 등이며, 한국산 과실주스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7.8% 증가한 38만 3,000달러(한화 약 5억 250만 원)로 집계

18) HS Code 2202(설탕, 감미료, 맛, 향을 첨가한 물) + 2009(과실 · 견과류 · 채소주스) 기준

〈음료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음료류 (HS Code 2202)	1,073,584	1,251,882	1,343,001	1,427,345	1,828,095	100.0	28.1	9.9
1 오스트리아	405,828	490,221	542,944	635,447	821,139	44.9	29.2	13.8
2 스위스	64,467	71,094	70,551	73,180	184,442	10.1	152.0	26.9
3 네덜란드	156,543	133,606	121,849	125,017	141,428	7.7	13.1	1.4
4 프랑스	90,984	107,914	106,945	115,874	103,523	5.7	△10.7	△1.0
5 벨기에	57,895	51,939	64,686	84,618	102,998	5.6	21.7	18.7
⋮								
16 대한민국	621	787	1,414	4,191	6,254	0.3	49.2	0.7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주스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과실주스 (HS Code 2009)	1,525,148	1,688,398	1,412,167	1,395,651	1,339,725	100.0	△4.0	△5.6
1 브라질	406,277	417,116	365,366	322,639	344,489	25.7	6.8	△4.7
2 네덜란드	348,774	365,187	317,448	312,710	221,105	16.5	△29.3	△11.8
3 폴란드	165,127	229,452	158,582	192,509	199,964	14.9	3.9	-3.4
4 오스트리아	118,272	148,271	126,269	115,680	125,716	9.4	8.7	△4.0
5 이탈리아	148,253	156,867	128,033	121,603	115,954	8.7	△4.6	△7.3
⋮								
48 대한민국	64	29	112	143	383	0.03	167.8	0.9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2021년 독일로 수입되는 음료의 평균 단가는 0.7달러(한화 약 918원)/kg로 집계

○ ‘음료류(2202)’의 평균 수입단가는 0.11달러(한화 약 144원)/kg

- 주요 수입국인 오스트리아산 음료류 수입단가는 1.469달러(한화 약 1,916원)/kg로 확인되며, 수입 상위 5개국 중 스위스산 음료류 수입단가가 2.456달러(한화 약 3,203원)/kg로 가장 고가에 수입

- 한국산 음료류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402달러(한화 약 1,828원)/kg로 평균 수입단가 대비 높은 가격에 수입

<음료류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음료류 (HS Code 2202)	0.865	0.944	0.921	0.990	0.106	△89.2	△42.0
1 오스트리아	1.150	1.217	1.156	1.260	1.469	16.6	4.8
2 스위스	2.314	2.361	2.258	2.325	2.456	5.6	1.0
3 네덜란드	1.088	1.221	1.158	1.333	1.407	5.6	3.6
4 프랑스	0.389	0.434	0.438	0.440	0.414	△5.9	△1.2
5 벨기에	0.874	1.020	0.852	0.809	0.836	3.3	△4.9
⋮							
16 대한민국	0.803	0.992	1.021	1.253	1.402	11.9	0.1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과실주스²⁰⁰⁹’의 평균 수입단가는 1.23달러(한화 약 1,614원)/kg
 -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산 과실주스 수입단가는 1.1달러(한화 약 1,443원)/kg로 집계되며, 이탈리아를 제외한 수입 상위 5개국 모두 평균 수입단가와 유사한 수준
 - 한국산 과실주스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8.3% 하락한 6.5달러(한화 약 8,528원)/kg로 평균 수입단가 대비 약 5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가격 형성

<주스류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과실주스 (HS Code 2009)	1.289	1.321	1.185	1.182	1.230	4.1	△1.8
1 브라질	1.668	1.516	1.454	1.118	1.101	△1.5	△7.7
2 네덜란드	1.242	1.219	1.136	1.237	1.272	2.8	1.1
3 폴란드	1.099	1.181	0.912	1.093	1.210	10.7	0.6
4 오스트리아	1.163	1.367	1.098	1.169	1.243	6.3	△2.3
5 이탈리아	0.832	1.058	0.842	0.877	0.835	△4.8	△5.7
⋮							
48 대한민국	5.333	3.222	4.308	7.944	6.492	△18.3	0.2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독일로 수입되는 음료 제품은 유형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

- 음료류의 기본세율은 최소 5.4%에서 최대 9.6% 수준이며, 과일주스의 기본세율은 품목 및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나 통상 10.5~33.6% 수준 내외로 적용
- 한국산 음료류와 과일주스는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무관세로 수입 가능

〈음료류 관세율(2021년)〉

(단위: %)

품목	구분		기본세율	한-EU FTA 협정세율
	HS Code	품명		
음료류	2202.10	음료류	9.6%	0%
	2202.91	무알코올 맥주	9.6%	0%
	2202.99	음료류 기타	5.4~9.6%	0%
과실주스	2009.11	오렌지주스(냉동)	15.2~33.6%	0%
	2009.12	오렌지주스(20bx 이하)	12.2%	0%
	2009.19	오렌지주스(기타)	12.2~33.6%	0%
	2009.21	자몽(포멜로)주스(20bx 이하)	12.0%	0%
	2009.29	자몽(포멜로)주스(67bx 초과)	12.0~33.6%	0%
	2009.31	기타 감귤주스(20bx 이하)	14.4~15.2%	0%
	2009.39	기타 감귤주스(67bx 초과)	14.4~33.6%	0%
	2009.41	파인애플주스(20bx 이하)	15.2~16.0%	0%
	2009.49	파인애플주스(67bx 초과)	15.2~33.36%	0%
	2009.50	토마토주스	16.0~16.8%	0%
	2009.61	포도주스(30bx 이하)	22.4%	0%
	2009.69	포도주스(67bx 초과)	22.4~40.0%	0%
	2009.71	사과주스(20bx 이하)	18.0%	0%
	2009.79	사과주스(67bx 초과)	18.0~30.0%	0%
	2009.81	크랜베리 주스	14.0~33.6%	0%
	2009.89	기타 단일 과일/견과류/채소 주스	10.5~33.6%	0%
	2009.90	혼합 주스	15.2~33.6%	0%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2022.06.30. 기준)

□ 독일에서는 탄산음료, 과일음료 등이 100ml 당 평균 0.42유로(한화 약 565원)에 판매

- (독일산) 판매 단가는 약 0.28유로(한화 약 376원)/100ml로 탄산음료의 비중이 높은 편
-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한 뒤 용기를 음료 판매점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재활용 페트병을 음료 용기로 사용하는 등 친환경을 지향하는 음료 제품이 유통

- (수입산) 호주,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된 음료류(과일주스, 탄산음료 등)가 0.44유로(한화 약 592원)/100ml에 판매
 - 수입산 음료는 캔, 페트, 유리, 종이 등 비교적 다양한 포장재의 제품으로 구성
- (한국산) 주로 과일 음료가 유통되며, 평균 0.54유로(한화 약 726원)/100ml에 판매
 - 이 중에서도 알로에 맛 음료가 다수 판매되고 있음

<독일에서 유통되는 음료 제품>

사진			
제품명	Schwip Schwap ohne Zucker	Deit Tropische Früchte MEHRWEG	Flötzinger Cola Mix Dose
원산지	독일	독일	독일
제품형태	탄산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
가격	€ 5.94 / 1.5 l (한화 약 7,987원)	€ 1.46 / 1 l (한화 약 1,936원)	€ 24.99 / 330ml (24개입) (한화 약 3만 3,604원)
100g(ml) 당 단가	€ 0.39 / 100g (한화 약 524원)	€ 0.14 / 100g (한화 약 188원)	€ 0.31 / 100g (한화 약 417원)
사진			
제품명	Abhilfe RAW Kombucha Tee Gemischt Fal	Mogu mogu fruchtiger Drink mit	Maaza Soursop Guanabana Fruchtsaft
원산지	호주	일본	네덜란드
제품형태	발효 음료	과일음료	과일음료
가격	€ 28.95 / 250ml (24개입) (한화 약 3만 8,929원)	€ 9.99 / 320ml (6개입) (한화 약 1만 3,433원)	€ 3.25 / 1 l (한화 약 4,370원)
100g(ml) 당 단가	€ 0.48 / 100g (한화 약 645원)	€ 0.52 / 100g (한화 약 699원)	€ 0.32 / 100g (한화 약 430원)
사진			
제품명	Aloe Vera Drink	Birrensaft	CoolPeace soda Pfirsich
원산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조국 원산지:라트비아)
제품형태	과일음료	과일음료	과일음료
가격	€ 23.88 / 500ml (12개입) (한화 약 3만 2,111원)	€ 1.75 / 238ml (한화 약 2,353원)	€ 1.61 / 340ml (한화 약 2,156원)
100g(ml) 당 단가	€ 0.39 / 100g (한화 약 524원)	€ 0.76 / 100g (한화 약 1,021원)	€ 0.47 / 100g (한화 약 632원)

* 출처: amazon.de, ebay.de, dawayo.de

(4) 라면류¹⁹⁾

□ 2021년 라면류가 포함된 ‘그 밖의 파스타(1902.30)’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2억 4,167만 달러(한화 약 3,168억 2,937만 원)로 집계

- 면류 등 ‘그 밖의 파스타(1902.30)’ 수입액은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6.4% 증가

<그 밖의 파스타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0)	CAGR ²⁾ (17/21)
그 밖의 파스타 (HS Code 1902.30)	166,810	188,338	191,625	217,355	241,673	11.2	6.4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13.7%), 이탈리아(11.3%), 중국(9.8%), 오스트리아(9.7%), 한국(8.7%)으로 구성
 - 베트남산과 오스트리아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이탈리아, 중국,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한국산 수입액은 2,098만 1,000달러(한화 약 275억 609만 원)로 전년 대비 45.9% 증가

<그 밖의 파스타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0)	CAGR ²⁾ (17/21)
그 밖의 파스타 (HS Code 1902.30)	166,810	188,338	191,625	217,355	241,673	100.0	11.2	6.4
1 베트남	21,453	27,122	28,031	38,313	33,054	13.7	△13.7	5.1
2 이탈리아	33,443	29,616	22,186	22,699	27,245	11.3	20.0	△2.1
3 중국	17,089	15,524	17,380	17,437	23,774	9.8	36.3	11.2
4 오스트리아	17,644	18,287	17,610	22,327	21,931	9.1	△1.8	4.6
5 대한민국	5,456	7,892	9,850	14,383	20,981	8.7	45.9	27.7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19) HS Code 1902.30(인스턴트 면류) 기준

□ 2021년 면류 등 ‘그 밖의 파스타(1902.30)’의 평균 수입단가는 2.50달러(한화 약 3,277원)/kg로 전년 대비 16.3% 증가

- 수입 상위 5위국 중 한국산의 수입단가가 3.67달러(한화 약 4,811원)/kg로 가장 높음

〈그 밖의 파스타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그 밖의 파스타 (HS Code 1902.30)	1.822	1.915	2.039	2.147	2.496	16.3	6.8
1 베트남	1.592	1.563	1.693	1.736	2.181	25.6	8.7
2 이탈리아	1.169	1.222	1.384	1.408	1.592	13.1	6.8
3 중국	1.433	1.357	1.425	1.582	2.245	41.9	13.4
4 오스트리아	3.503	3.688	3.343	3.216	3.177	△1.2	△3.7
5 대한민국	2.848	3.059	3.063	3.221	3.667	13.8	4.6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독일로 수입되는 면류 등 ‘그 밖의 파스타(1902.30)’에는 기본세율 6.4%가 적용

- 반면 한국산 그 밖의 파스타는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무관세로 수입 가능

〈그 밖의 파스타 관세율(2021년)〉

(단위: %)

품목	기본세율	한-EU FTA 협정세율
그 밖의 파스타 (HS Code 1902.30)	6.4%	0%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2022.06.30. 기준)

□ 인스턴트 파스타, 라면, 볶음면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평균 100g당 2.6유로(한화 약 3,496원)에 판매

- (독일산) 주로 컵라면 형태의 인스턴트 파스타가 약 3.56유로(한화 약 4,787원)/100g로 판매

- (수입산) 헝가리, 일본, 태국 등에서 수입된 라면이 약 2.80유로(한화 약 3,765원)/100g에 유통
 - 치킨, 채소, 카레 등 맵지 않은 맛의 제품이 주로 끓여먹는 형태로 판매
- (한국산) 컵라면과 봉지라면이 두루 유통되며, 주로 매운맛 라면이 약 1.54유로(한화 약 2,071원)/100g 수준에 판매

<독일에서 유통되는 라면 제품>

사진			
제품명	Noodle Express Asia Rind Geschmack Instant Nudeln	Pasta Snack Brokkoli-Käse-Sauce leckere Instant Nudeln	Pasta Snack Bolognese-Sauce leckere Instant Nudeln
원산지	독일	독일	독일
제품형태	비닐 포장	컵 포장	컵 포장
가격	€ 8.49 / 58g (11개입) (한화 약 1만 1,341원)	€ 18.90 / 62g (8개입) (한화 약 2만 5,248원)	€ 18.90 / 68g (5개입) (한화 약 2만 5,248원)
100g(ml) 당 단가	€ 1.33 / 100g (한화 약 1,777원)	€ 3.80 / 100g (한화 약 5,076원)	€ 5.55 / 100g (한화 약 7,414원)
사진			
제품명	Instant Nudeln Huhn	Demae Ramen	Instantnudeln Huhn
원산지	헝가리	일본	태국
제품형태	비닐 포장	비닐 포장	비닐 포장
가격	€ 12.98 / 55g (30개입) (한화 약 1만 7,456원)	€ 5.50 / 100g (5개입) (한화 약 7,396원)	€ 16.45 / 60g (30개입) (한화 약 2만 2,123원)
100g(ml) 당 단가	€ 0.78 / 100g (한화 약 1,048원)	€ 1.10 / 100g (한화 약 1,479원)	€ 0.90 / 100g (한화 약 1,210원)
사진			
제품명	Chapagetti Instant Nudeln	Shin Ramyun Instant Nudeln Gourmet würzig	Nong Shim Instant-Cup-Nudeln Kim Chi Ramen
원산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품형태	비닐 포장	비닐 포장	컵 포장
가격	€ 29.95 / 140g (20개입) (한화 약 4만 278원)	€ 29.90 / 120g (20개입) (한화 약 4만 210원)	€ 20.99 / 75g (12개입) (한화 약 2만 8,228원)
100g(ml) 당 단가	€ 1.06 / 100g (한화 약 1,426원)	€ 1.24 / 100g (한화 약 1,668원)	€ 2.32 / 100g (한화 약 3,120원)

* 출처: ebay.de, amazon.de

(5) 주류²⁰⁾

□ 2021년 주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56억 2,344만 달러(한화 약 7조 3,695억 원)로 집계

- 전체 주류 수입액 중 59.0%를 포도주 수입이 차지하며, 뒤이어 증류주·리큐르(31.7%), 맥주(8.3%), 그 밖의 발효주(1.0%) 순으로 나타남

<주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주류 계	5,235,350	5,572,084	5,178,534	5,050,289	5,623,437	100.0	11.3	0.2
맥주 (HS Code 2203)	497,743	522,695	522,317	463,606	468,051	8.3	1.0	△2.7
포도주 (HS Code 2204)	2,918,934	3,172,029	2,954,950	3,015,882	3,318,213	59.0	10.0	1.1
그 밖의 발효주 (HS Code 2206)	56,441	62,135	51,303	41,266	53,790	1.0	30.3	△3.5
증류주·리큐르 (HS Code 2208)	1,762,232	1,815,225	1,649,964	1,529,535	1,783,383	31.7	16.6	△0.4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주류 유형별 주요 수입국은 다소 상이한 양상이나 보편적으로 유럽국가 위주로 구성
 - 맥주 수입은 덴마크(33.0%), 체코(14.9%), 네덜란드(12.9%), 벨기에(11.0%) 등에서 이뤄지며, 한국산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1% 증가한 8만 9,000달러(한화 약 1억 1,663만 원)로 집계

<맥주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맥주 (HS Code 2203)	497,743	522,695	522,317	463,606	468,051	100.0	1.0	△2.7
1 덴마크	222,902	209,507	193,247	147,183	154,230	33.0	4.8	△7.4
2 체코	60,697	63,163	73,323	70,296	69,509	14.9	△1.1	2.4
3 네덜란드	42,924	57,132	54,272	59,231	60,277	12.9	1.8	1.3
4 벨기에	61,533	70,028	69,264	65,099	51,702	11.0	△20.6	△7.3
5 오스트리아	11,194	14,377	21,867	22,365	31,952	6.8	42.9	22.1
⋮								
34 대한민국	74	99	93	64	89	0.02	39.1	△0.03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20) HS Code 2203(맥주) + 2204(포도주) + 2206(그 밖의 발효주) + 2208(증류주·리큐르, 그 밖의 주정음료) 기준

- 포도주는 이탈리아(40.6%), 프랑스(28.5%), 스페인(12.9%)에서 대부분 수입되며, 2021년 한국산 포도주 수입액은 집계되지 않음

<포도주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포도주 (HS Code 2204)	2,918,934	3,172,029	2,954,950	3,015,882	3,318,213	100.0	10.0	1.1
1 이탈리아	1,065,924	1,167,994	1,110,935	1,191,552	1,348,078	40.6	13.1	3.6
2 프랑스	773,813	848,493	834,840	800,798	946,414	28.5	18.2	2.8
3 스페인	466,721	512,859	415,333	419,082	429,633	12.9	2.5	△4.3
4 남아프리카공화국	104,271	119,729	95,165	93,355	94,274	2.8	1.0	△5.8
5 미국	102,407	85,026	89,324	98,718	92,984	2.8	△5.8	2.3
⋮								
71 대한민국	6	2	1	-	-	-	-	-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기타 발효주 수입은 덴마크(13.4%), 프랑스(13.3%), 이탈리아(9.2%), 벨기에(8.8%), 네덜란드(8.3%)에서 이뤄지며, 한국산 기타 발효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39만 5,000달러(한화 약 5억 1,765만 원)로 집계

<그 밖의 발효주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그 밖의 발효주 (HS Code 2206)	56,441	62,135	51,303	41,266	53,790	100.0	30.3	△3.5
1 덴마크	13,340	9,432	9,825	6,391	7,205	13.4	12.7	△6.5
2 프랑스	5,982	6,601	5,976	6,561	7,135	13.3	8.7	2.0
3 이탈리아	6,072	7,036	5,492	3,974	4,931	9.2	24.1	△8.5
4 벨기에	1,789	3,262	2,951	2,092	4,726	8.8	125.9	9.7
5 네덜란드	3,812	7,558	3,752	2,286	4,490	8.3	96.4	△12.2
⋮								
19 대한민국	122	161	166	217	395	0.7	82.0	0.3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증류주 및 리큐르 수입은 영국(21.0%)과 이탈리아(18.7%)로 양분되며,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9.4% 증가한 73만 4,000달러(한화 약 9억 6,191만 원)로 집계

<증류주·리큐르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증류주·리큐르 (HS Code 2208)	1,762,232	1,815,225	1,649,964	1,529,535	1,783,383	100.0	16.6	△0.4
1 영국	395,106	436,465	412,943	342,594	375,066	21.0	9.5	△3.7
2 이탈리아	228,020	227,323	241,870	256,035	333,524	18.7	30.3	10.1
3 미국	313,652	289,904	146,436	141,032	142,208	8.0	0.8	△16.3
4 프랑스	150,801	157,953	143,426	114,405	133,989	7.5	17.1	△4.0
5 스페인	79,673	94,352	81,187	78,478	97,412	5.5	24.1	0.8
⋮								
51 대한민국	267	200	339	320	734	0.04	129.4	0.4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2021년 주류 수입단가는 품목별로 상이하며, 증류주 및 리큐르의 수입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증류주·리큐르) 평균 수입단가는 5.01달러(한화 약 6,566원)/kg로 전년 대비 4.0% 증가
- 한국산 증류주 및 리큐르 수입단가는 2.83달러(한화 약 3,709원)/kg로 전년 대비 33.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입단가에 못 미치는 수준

<증류주·리큐르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증류주·리큐르 (HS Code 2208)	5.550	5.667	5.000	4.818	5.009	4.0	△3.0
1 영국	7.128	7.456	6.596	6.826	6.907	1.2	△1.9
2 이탈리아	4.102	4.117	3.716	3.776	3.936	4.2	△1.1
3 미국	8.724	8.307	5.528	5.776	6.119	5.9	△7.4
4 프랑스	5.626	6.423	6.596	5.801	6.390	10.2	△0.1
5 스페인	5.456	5.807	5.312	5.662	6.153	8.7	1.5
⋮							
51 대한민국	2.282	2.299	2.132	2.119	2.834	33.7	0.05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포도주)** 전년 대비 9.0% 증가한 2.26달러(한화 약 2,962원)/kg에 수입되며, 프랑스산 포도주의 수입 단가가 가장 높음
 - 프랑스산 포도주 수입단가는 4.58달러(한화 약 6,002원)/kg로 평균 수입단가 대비 약 2배가량 비싼 수준으로 수입되며, 뒤이어 미국산, 이탈리아산,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스페인산 순으로 가격 형성
 -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한국산 포도주 수입단가는 집계되지 않음

〈포도주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포도주 (HS Code 2204)	1.909	2.151	1.984	2.074	2.261	9.0	1.3
1 이탈리아	1.829	2.190	1.936	2.233	2.490	11.5	3.3
2 프랑스	3.522	4.005	3.792	3.748	4.580	22.2	3.4
3 스페인	1.208	1.384	1.138	1.161	1.044	△10.1	△6.8
4 남아프리카공화국	1.258	1.210	1.374	1.333	1.366	2.5	3.1
5 미국	2.434	2.447	2.286	2.066	2.519	21.9	0.7
⋮							
71 대한민국	N/A	N/A	N/A	N/A	N/A	-	-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그 밖의 발효주)** 평균 수입단가는 1.21달러(한화 약 1,586원)/kg로 전년 대비 0.9% 감소
 - 주요 수입국 중 이탈리아산 수입단가가 2.57달러(한화 약 3,368원)/kg로 가장 높으며, 한국산 기타 발효주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41.8% 증가한 1.99달러(한화 약 2,608원)/kg로 평균 단가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수입

〈그 밖의 발효주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그 밖의 발효주 (HS Code 2206)	1.262	1.350	1.229	1.223	1.212	△0.9	△2.7
1 덴마크	1.285	1.137	1.217	1.175	1.221	3.9	1.8
2 프랑스	1.122	1.326	1.239	1.025	1.031	0.6	△6.1
3 이탈리아	2.128	2.787	2.544	2.743	2.568	△6.4	△2.0
4 벨기에	0.937	1.120	1.026	1.055	1.205	14.2	1.8
5 네덜란드	0.667	0.941	0.661	0.609	0.716	17.6	△6.6
⋮							
19 대한민국	1.525	1.548	1.537	1.400	1.985	41.8	0.06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맥주) 평균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0.72달러(한화 약 944원)/kg에 수입되어 주요 주류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유통
- 수입 상위 5개국 모두 평균 수입단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중 덴마크산 맥주가 0.86달러(한화 약 1,127원)/kg로 가장 비싸게 수입
- 한국산 맥주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25.5% 증가한 2.17달러(한화 약 2,844원)/kg로 평균 수입단가 대비 약 3배가량 고가에 유통

<맥주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맥주 (HS Code 2203)	0.734	0.728	0.711	0.672	0.722	7.4	△0.2
1 덴마크	0.840	0.852	0.809	0.790	0.856	8.4	0.1
2 체코	0.658	0.660	0.717	0.661	0.637	△3.6	△0.9
3 네덜란드	0.780	0.712	0.703	0.700	0.660	△5.7	△1.9
4 벨기에	0.512	0.524	0.541	0.529	0.670	26.7	6.3
5 오스트리아	0.613	0.632	0.667	0.607	0.663	9.2	1.2
⋮							
34 대한민국	1.175	1.125	1.134	1.730	2.171	25.5	0.2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주류 유형별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한국산의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무관세 수입 가능

<주류 관세율(2021년)>

(단위: %)

구분			기본세율	한-EU FTA 협정세율
품목	HS Code	품명		
주류	2203	맥주	0%	-
	2204	포도주	12.1~32.0 EUR HLT	0%
	2206	그 밖의 발효주	1.300 EUR ASV X MIN 7.200 EUR HLT 또는 19.200 EUR HLT 또는 7.700 EUR HLT 또는 5.760 EUR HLT	0%
	2208	증류주 · 리큐르	0%	0%

*주: HS Code 단위에 따라 상세품목별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품목의 세율은 별도 확인 필요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2022.06.30. 기준)

□ 특정 주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주류가 유통

- (독일산) 맥주의 비중이 높으며 증류주, 와인 등도 유통
- (수입산) 미국, 네덜란드,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맥주, 증류주, 칵테일 등이 유통
- (한국산) 주로 소주가 활발하게 유통되며, 이 중에서도 딸기 맛, 청포도 맛 등 과일소주의 비중이 높음
 - 한국산 소주는 약 1.33유로(한화 약 1,789원)/100ml, 한국산 막걸리는 약 0.54유로(한화 약 726원)/100ml 수준에 판매

<독일에서 유통되는 주류 제품>

사진			
제품명	Premium Pilsener 0.5 l Dosen Tray DPG EINWEG	Whisky Charles House	Ice Tea Lemon
원산지	독일	독일 (제조 원산지: 영국)	독일
제품형태	캔 맥주	병 위스키	캔 칵테일
가격	€ 27.99 / 500ml (24개입) (한화 약 3만 7,642원)	€ 14.95 / 710ml (한화 약 2만 105원)	€ 2.69 / 330ml (한화 약 3,618원)
100g(ml) 당 단가	€ 0.23 / 100g (한화 약 309원)	€ 2.10 / 100g (한화 약 2,824원)	€ 0.81 / 100g (한화 약 1,089원)
사진			
제품명	San Miguel Especial Dose DPG Bierpaket	Jack Daniels Old No. 7	Coppa Cocktails Pina Colada
원산지	필리핀	미국	네덜란드
제품형태	캔 맥주	병 증류주	병 칵테일
가격	€ 22.50 / 330ml (24개입) (한화 약 3만 259원)	€ 49.49 / 1.75 l (한화 약 6만 6,556원)	€ 14.75 / 700ml (한화 약 1만 9,836원)
100g(ml) 당 단가	€ 0.28 / 100g (한화 약 377원)	€ 2.91 / 100g (한화 약 3,913원)	€ 2.10 / 100g (한화 약 2,824원)

사진			
제품명	Soju Jinro Chamisul Classic	Soju mit Erdbeergeschmack	Pfirsich Reiswein
원산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품형태	병 소주	병 소주	캔 막걸리
가격	€ 5.90 / 350ml (한화 약 7,935원)	€ 4.59 / 360ml (한화 약 6,172원)	€ 2.86 / 350 ml (한화 약 3,846원)
100g(ml) 당 단가	€ 1.68 / 100g (한화 약 2,259원)	€ 1.27 / 100g (한화 약 1,707원)	€ 0.81 / 100g (한화 약 1,089원)

* 출처: amazon.de, kaufland.de, dawayo.de

(6) 새송이버섯²¹⁾

□ 2021년 버섯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9,966만 8,000달러(한화 약 1,306억 1,491만 원)로 집계

- 이 중 새송이버섯이 포함된 ‘식용가능한 기타 버섯류(0709.59-9000)’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42.9%를 차지
 - ‘식용가능한 기타 버섯류(0709.59-9000)’ 수입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4,273만 6,000달러(한화 약 560억 553만 원)로 집계

<버섯류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버섯류 기타 (HS Code 0709.59)	102,172	104,390	107,137	101,723	99,668	100.0	△2.0	△1.2
- 신선·냉장 살구버섯 (HS Code 0709.59-1000)	48,236	48,410	50,565	44,971	46,993	47.1	4.5	△0.7
- 신선·냉장 플랩버섯 (HS Code 0709.59-3000)	5,396	4,761	4,925	4,133	2,617	2.6	△36.7	△13.9
- 신선·냉장 송로버섯 (HS Code 0709.59-5000)	6,830	8,229	5,631	5,950	5,088	5.1	△14.5	△11.3
- 버섯류 기타 (HS Code 0709.59-9000)	39,957	42,990	46,016	46,669	42,736	42.9	△8.4	△0.1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21) HS Code 0709.59(버섯류 기타) 기준

- 전체 ‘버섯류(0709.59)’ 수입은 폴란드(29.1%), 벨라루스(14.6%), 네덜란드(11.1%) 등에서 이뤄지며, 한국산의 비중은 7.3%로 나타남
- 2021년 한국산 ‘버섯류(0709.59)’ 수입액은 전년 대비 49.0% 증가한 731만 6,000달러(한화 약 95억 9,128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입 규모는 보합세를 보임

<버섯류 기타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0)	CAGR ²⁾ (17/21)
버섯류 기타 (HS Code 0709.59)		102,172	104,390	107,137	101,723	99,668	100.0	△2.0	△1.2
1	폴란드	29,656	25,755	28,992	26,394	29,022	29.1	10.0	3.0
2	벨라루스	14,965	16,922	18,070	14,884	14,597	14.6	△1.9	△3.6
3	네덜란드	15,741	19,084	18,222	18,490	11,063	11.1	△40.2	△12.7
4	러시아	8,381	9,217	12,361	11,904	8,304	8.3	△30.2	△2.6
5	리투아니아	7,864	5,850	8,138	7,299	7,545	7.6	3.4	6.6
6	대한민국	1,745	2,223	2,600	4,909	7,316	7.3	49.0	0.4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버섯류(0709.59)’ 평균 수입단가는 5.57달러(한화 약 7,302원)/kg로, 전년 대비 20.5% 증가

- 수입 상위 5개국 중 러시아산 수입단가가 10.78달러(한화 약 1만 4,133원)/kg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뒤이어 벨라루스산 9.32달러(한화 약 1만 2,219원)/kg, 리투아니아산 8.70달러(한화 약 1만 1,410원)/kg, 네덜란드산 3.81달러(한화 약 4,996원)/kg, 폴란드산 3.20달러(한화 약 4,197원)/kg 순으로 나타남
- 한국산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32.8% 증가한 7.45달러(한화 약 9,771원)/kg로 평균 수입단가 대비 높은 수준

<버섯류 기타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버섯류 기타 (HS Code 0709.59)	4.301	4.829	4.351	4.621	5.567	20.5	3.6
1 폴란드	2.847	2.674	2.775	2.852	3.202	12.3	4.6
2 벨라루스	5.834	7.770	6.447	7.105	9.321	31.2	4.7
3 네덜란드	3.197	3.696	3.256	3.576	3.806	6.4	0.7
4 러시아	5.311	7.605	6.196	6.386	10.784	68.9	9.1
5 리투아니아	5.666	7.647	6.156	6.067	8.702	43.4	3.3
6 대한민국	5.147	5.255	5.417	5.610	7.450	32.8	0.1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독일로 버섯 수입 시 유형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6.4%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산의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므로 무관세로 수입 가능

<버섯류 관세율(2021년)>

(단위: %)

품목			기본세율	한-EU FTA 협정세율
버섯류	0709.59-1000	신선·냉장 살구버섯	3.2%	0%
	0709.59-3000	신선·냉장 플랩버섯	5.6%	0%
	0709.59-5000	신선·냉장 송로버섯	6.4%	0%
	0709.59-9000	버섯류 기타	6.4%	0%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2022.06.30. 기준)

(7) 인삼²²⁾

□ 2021년 인삼 수입액은 전년 대비 79.7% 증가한 550만 9,000달러(한화 약 72억 2,505만 원)로 집계

<인삼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신선·냉장·건조 인삼 (HS Code 1211.20)	7,844	7,906	4,813	3,066	5,509	79.7	△8.6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인삼 수입의 대부분이 중국산(96.1%)이며, 이 외 한국(1.5%), 프랑스(1.0%) 등지에서 일부 수입
 - 2021년 중국산 인삼 수입액은 전년 대비 81.3% 증가한 529만 4,000달러(한화 약 69억 4,308만 원)로 집계
 - 동년 한국산 인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8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1,147만 원)로 수입 상위 2위에 기록되었으나 비중은 전체 수입의 1.5%에 불과

<인삼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YoY ¹⁾ (20/21)	CAGR ²⁾ (17/21)
신선·냉장·건조 인삼 (HS Code 1211.20)	7,844	7,906	4,813	3,066	5,509	100.0	79.7	△8.6
1 중국	6,972	7,230	4,692	2,920	5,294	96.1	81.3	△7.5
2 대한민국	32	86	7	34	85	1.5	150.0	△0.3
3 프랑스	48	12	9	6	54	1.0	800.0	45.6
4 미국	2	-	4	23	41	0.7	78.3	-
5 벨기에	51	122	29	69	26	0.5	△62.3	△32.1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22) HS Code 1211.20(신선·냉장·건조 인삼) 기준

□ 2021년 인삼 평균 수입단가는 27.96달러(한화 약 3만 6,670만 원)/kg로 전년 대비 18.8% 감소

- 수입 인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의 수입단가는 27.57달러(한화 약 3만 6,158만 원)/kg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1.6% 감소
- 한국산 인삼 수입단가는 2020년 기준(최신자료) 34달러(한화 약 4만 4,591원)/kg로 나타남

<인삼 주요국 수입단가(2017~2021)>

(단위: 달러/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YoY ¹⁾ (20/21)	CAGR ²⁾ (17/21)
신선·냉장·건조 인삼 (HS Code 1211.20)	29.269	20.805	35.918	34.449	27.964	△18.8	7.7
1 중국	31.125	33.628	36.372	35.181	27.573	△21.6	△4.8
2 대한민국	-	43.000	-	34.000	-	-	-
3 프랑스	48.000	-	-	-	54.000	-	-
4 미국	-	-	-	-	-	-	-
5 벨기에	25.500	2.392	29.000	13.800	13.000	△5.8	52.7

* 주1: YoY(Year-of-Year), 전년 대비 증감률

*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 출처: ITC Trademap(2022.06.30. 기준)

□ 독일로 수입되는 인삼의 기본세율은 0%이며, 한국산 인삼 역시 한-EU FTA 협정세율이 부과되어 무관세로 수입 가능

<인삼 관세율(2021년)>

(단위: %)

품목	기본세율	한-EU FTA 협정세율
신선·냉장·건조 인삼 (HS Code 1211.20)	0%	0%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2022.06.30. 기준)

□ 독일 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신선·냉장 인삼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인삼 가공품이 판매

<독일에서 유통되는 인삼가공품>

사진			
제품명	Ginseng Extract Organic	Korea Ginseng Extra Strong Capsules Pack	Siberian Ginseng
원산지	독일	독일	독일
제품형태	정제	정제	정제
가격	€ 1.30 / 10정 (120개) (한화 약 1,748원)	€ 2.98 / 10정 (80개) (한화 약 4,001원)	€ 1.49 / 10정 (60개) (한화 약 2,001원)
사진			
제품명	Panax Ginseng	PANAX GINSENG	Korean Ginseng
원산지	미국	미국	영국
제품형태	정제	정제	정제
가격	€ 27.75 / 250정 (한화 약 3만 7,267원)	€ 37.86 / 60정 (한화 약 5만 844원)	€ 43.80 / 60정 (한화 약 5만 8,821원)
10정 당 단가	€ 1.11 / 10정 (한화 약 1,491원)	€ 6.31 / 10정 (한화 약 8,474원)	€ 7.30 / 10정 (한화 약 9,804원)
사진			
제품명	korean 6 Years Red Ginseng Pure Extract	Korea Roter Ginseng Extrakt 100% 6 Jahre Pure	6-Jahre Korean Red Ginseng Extract Gold
원산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품형태	홍삼 농축액	홍삼 농축액	홍삼 농축액
가격	€ 263.78 / 240g (한화 약 35만 4,243원)	€ 62.99 / 100g (2개입) (한화 약 8만 4,592원)	€ 85.19 / 240g (한화 약 11만 4,406원)
100g(ml) 당 단가	€ 109.90 / 100g (한화 약 14만 7,590원)	€ 31.4 / 100g (한화 약 4만 2,169원)	€ 35.49 / 100g (한화 약 4만 7,661원)

* 출처: amazon.de, ebay.de

2. 이슈 및 유망품목

가. 최근 이슈 품목

□ 건강 중시 트렌드로 무알코올²³⁾·저알코올²⁴⁾ 주류의 인기 상승

- 독일 주류 시장 내 무·저알코올 맥주, 와인, 진, 럼 등이 출시되며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
 - 독일맥주협회(Deutschen Brauer-Bundes, DBB)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독일 내 전체 맥주 브랜드 중 약 10% 이상이 무알코올 혹은 저알코올 브랜드일 만큼 무알코올/저알코올 주류 소비가 높은 편

〈독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알코올/저알코올 주류 예시〉

	
무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위스키

* 출처 : anazon.de

□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 소비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 제고

- 독일은 전통적으로 절임 채소류(사우어크라우트)를 섭취하며 발효식품에 대해 익숙한 소비 습관을 보유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건강 증진 및 면역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촉발되며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이슈가 됨

23) 독일 내 무알코올 주류의 알코올 함량 기준은 0.5% vol(4g/l) 미만

24) 독일 내 저알코올 주류의 알코올 함량 기준은 0.5~4% vol(32g/l) 미만

<독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발효식품 예시>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된장

* 출처 : amazon.de

□ 독일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하고 신선한 슈퍼푸드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식품으로 소개

- 이에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류와 막걸리 등도 소개됨
- 특히 김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독일 내 수요가 급증
- 독일 내 주요 유통채널 중 하나인 Rewe는 2021년부터 김치 판매를 시작
- 독일 유튜버(Meine Leckere Küche)가 2022년에 게시한 김치 레시피 영상²⁵⁾은 동년 6월 기준 300만 조회 수를 넘게 기록하는 등 김치에 대한 관심 증가

<독일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 및 김치 레시피 영상>

	
독일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	김치 레시피 영상

* 출처 : https://m.blog.naver.com/tofk21/222232873086?view=img_1, https://www.youtube.com/watch?v=rCtMyn-a_OA

-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은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혈액순환 및 소화를 촉진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포만감을 들게 하는 소스류로 소개
- 막걸리는 ‘한국의 우윳빛 포도주’로 소개되며, 발효 식품으로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아미노산과 비타민 B와 C가 풍부해 피부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짐

25) https://www.youtube.com/watch?v=rCtMyn-a_OA

〈독일 매체에서 소개된 된장과 막걸리〉



Doenjang, die salzige Paste aus fermentierten Sojabohnen, ist bei jungen Koreanerinnen besonders beliebt



Makgeolli, den süßen Reiswein, kann man auch direkt auf die Haut auftragen - angeblich hat er eine straffende Wirkung

* 출처 : www.welt.de(사진 원출처- Getty Images)

- 한국 김은 독일 내 친환경 슈퍼푸드로 인기를 끌며 현지 채식 소비자²⁶⁾의 니즈를 충족
 - 김은 한국식 초밥으로 알려진 김밥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김 자체로 먹기도 하며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소개

〈독일에서 판매되는 김〉



* 출처 : amazon.de

26) 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독일 내 채식 소비자는 약 7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0만 명가량 증가

나. 수출 유망품목 발굴

□ 독일로의 수출 유망품목 발굴을 위해 총 6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여 계량화

〈수출 유망품목 선정 지표〉

① 한국산 수입 상위품목 중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 주요 수출 품목은 현재 한국에서 對영국으로 주로 수출되는 농식품 중 상승세가 유지되는 7개 품목(김치, 소스류, 파스타(면류), 음료류, 주류, 버섯류(새송이버섯), 인삼)으로 선정

② 2021년 한국산 농식품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③ 2021년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액 중 한국산의 비중(%)

④ 2021년 해당 품목의 한국산 수입 규모 연평균 증가율(최근 5년, %)

⑤ 2021년 해당 품목의 한국산 수입 규모(금액)

⑥ 2022년 7월 기준 현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의 수

- 2021년 기준 독일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 상위품목 중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면류²⁷⁾ ▲음료류²⁸⁾ ▲소스류 ▲김치²⁹⁾로 확인

2021년 영국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 상위품목

NO	품목	HS Code
1	파스타	1902
2	조제·보존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	2008
3	기타 채소류(신선·냉장)	0709
4	설탕·감미료·맛·향을 첨가한 물(음료류)	2202
5	베이커리류	1905
6	소스류	2103
7	기타 조제식료품	2106
8	조제·보존처리한 채소류	2005
9	맥아추출물 및 그 조제식료품	1901
10	로커스트콩·해초류 및 기타 조류·사탕무와 사탕수수 등	1212

對영국 주요 수출 품목

NO	품목	HS Code
1	김치	2005.99
2	소스류	2103
3	음료류	2202, 2009
4	인스턴트 면류(라면)	1902.30
5	주류	2203, 2204, 2206, 2208
6	버섯류	0709.59
7	인삼	1211.20

27) 그 밖의 파스타(HS Code 1902.30)

28)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맛·향을 첨가한 물(HS Code 2202.10)

29) 조제보존처리한 기타 채소류(HS Code 2005.99-80)

□ 각 품목별 점수 산정 결과, 對독일 수출 유망품목은 ‘파스타’와 ‘음료류’로 나타남

지표①	지표②		지표③		지표④		지표⑤		지표⑥		총 점
한국산 수입 상위품목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 중 비중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액 중 한국산 비중		해당 품목의 한국산 수입 규모 증가율 (최근 5년 연평균)		해당 품목의 한국산 수입 규모 (천 달러)		현지 온라인 판매 제품 수(한국산)		
	비중	배점	비중	배점	증가율	배점	수입액	배점	개수	배점	
파스타	33.4	4	8.7	4	27.7	4	20,981	4	50	4	20
음료류	8.5	3	0.3	1	1.6	3	6,637	3	4	1	11
소스류	5.4	2	0.4	2	0.2	1	4,012	2	27	3	10
조제/보존채소	3.7	1	0.8	3	0.3	2	2,678	1	19	2	9

○ (파스타) 對독일 수출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 라면 및 인스턴트 면류와 같은 ‘그 밖에 파스타(1902.30)’의 시장 유망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라면은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한국 식품으로, 최근 몇 년간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아시아 식품의 대중화, 한류로 인한 한국 식품의 인기로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
- 세계인스턴트면류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라면을 포함한 인스턴트 면류 소비는 3억 9,000만 개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고, 유럽 국가 중 영국(4억 3,000만 개) 다음으로 높은 소비량을 보임
- 특히 독일에서 한국 라면은 매운맛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인스턴트 면류 제품의 맛별 판매 순위는 매운맛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매운맛 라면을 대표하는 한국 라면의 경쟁력 존재

○ (음료류)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 對독일 수출 확대 가능성 존재

- 음료류(2202)와 주스류(2209) 모두 독일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음료류 49.2% ↑, 주스류 167.8% ↑)
- 독일에서 한국산 음료는 알로에 음료를 필두로 과즙 및 과육이 포함된 과일음료(배 음료, 과일 향 첨가 음료 등)가 주로 유통
- 최근 독일 음료 시장에도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며 탄산음료 보다는 과일이나 허브를 첨가한 음료 수요가 증가하며 한국 음료의 시장 확대 가능성 존재

III. 진출전략

1. 시장분석(SWOT)

□ 독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식품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은 다음과 같이 구분

- (강점)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건강식’ 이미지 보유
 - 독일에서 한국 식품은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메뉴로 인식되어 최근 건강과 면역을 중시하는 독일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합
 - 특히 김치, 전통 장류, 김과 같은 한국 식품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미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슈퍼푸드로 인식
 - 이 외에도 한-EU FTA 체결로 독일(EU)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하였으며, 이에 對독일(EU) 주요 수출 농식품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어 타 경쟁국산 수입 품목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에 용이
- (약점) 對독일 수출 품목의 편중, 한정적인 유통 루트 등은 한국산 농식품의 약점으로 꼽힘
 - 2021년 기준 독일에서 수입한 한국산 농식품 중 파스타와 조제·보존 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의 비중이 각각 33.4%와 22.1%로 집계되어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하였으며, 수입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이 85.5%에 달함
 - 최근 현지 주요 유통채널에서의 한국 식품 판매가 증가³⁰⁾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품목은 한인마트 위주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

30)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증가하며 REWE 등 현지 대형 유통채널은 김치와 같은 대표적인 한국 식품을 취급하기 시작

□ 對독일 수출 시 시장의 기회요인(Opportunity)과 위협요인(Threat)은 다음과 같음

- (기회요인) 독일의 식품 시장규모 및 소비액 증가, 농식품 수입규모 성장과 더불어 아시아 식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은 기회요인으로 작용
 - 2021년 기준 독일 식품 시장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8%의 성장세를 보였고,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 역시 최근 5년간 5.4%로 증가세
 - 독일의 농식품 수입 규모 역시 최근 5년간 4.1%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4%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최근 아시아 식품이 현지식에 비해 저렴하고도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메뉴로 인식되며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동반 상승 추세
- (위협요인) 자국산에 대한 높은 선호도, 식품 관련 엄격한 규제 도입 등은 對독일 진출 시 위협요인으로 작용
 - 독일 소비자들은 식품 소비 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 수출이 요구됨
 - 시장 내 식품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유의가 필요하며, 특히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³¹⁾

·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건강식' 이미지 · 한-EU 협정세율 적용(가격경쟁력)	· 對독일 주요 수출 품목 편중 · 한정적인 유통 루트
S W	
· 식품 시장규모 및 식품 소비액 증가 · 농식품 수입 증가세 · 아시아 식품 소비 증가	· 높은 식품 품질 및 안전성 수준 · 식품 관련 엄격한 규제 적용

31) 일례로 2025년부터 독일은 식료품의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함유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식품시장 내 규정 변화와 요구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 농식품 진출전략

가. 시장진출전략

□ 특정 품목군에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 극복

- 현재 독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식품은 면류, 조제·보존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³²⁾ 등에 한정되어 있음
- 최근 독일 식품시장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여 시장 확대 도모
 - 최근 건강을 지향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지속되며 글루텐프리, 프로바이오틱스, 락토오스프리(유당 불포함) 식품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알코올 주류의 수요도 증가
 - 이렇듯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유통채널의 다각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 독일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농식품은 주로 한인마트나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됨
- 최근 한국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며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대형 유통채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현지 주요 유통채널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 필요
- 또한 시장 진출 시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온라인 유통채널 활용을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
 - 2017년 이후 독일의 전자상거래 식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14.2% 증가하였고,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식품 소비는 연평균 40.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패턴이 정착하며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의존도가 확대됨

32) 생강, 포도, 열대과일, 무화과, 자두와 푸룬, 수박, 덩굴 식물 잎, 식용 해초류 등을 포함

□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출시로 현지 수요 창출

- 최근 독일 소비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으로, 식품 시장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뚜렷이 나타남
 - 독일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 및 무공해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지향하며 대체육류 및 대체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는 추세
 - 이 외에도 식품 소비 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포장된 식품의 소비를 지양하며, 친환경적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재를 활용한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유
- 이러한 소비 성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통해 對독일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생산·포장·유통 등 식품 공급체인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식품을 개발 및 선정하여 독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취득하는 것 역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나. 품목별 진출전략

□ 인스턴트 면류(라면)

- 경쟁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 2021년 독일로 수입되는 인스턴트 면류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2.5달러(한화 약 3,277원)로 집계
 - 수입 비중이 높은 베트남산(13.7%)과 중국산(9.8%)의 수입단가는 각각 kg당 2.2달러(한화 약 2,869원)로 나타남
 - 반면 한국산 인스턴트 면류 수입단가는 kg당 3.7달러(한화 약 4,811원)로 평균 수입단가 및 주요 경쟁국산 제품보다 고가에 유통
 - 이에 유통구조 최적화, 다양한 수입 루트 확보 등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현지 시장 내 한국 라면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건강을 내세운 제품 개발 및 마케팅
 - 보편적으로 독일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건강에 유익한 음식으로 인식
 - 건강한 식단을 중시하는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기름에 튀기지 않거나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 건강식 라면을 출시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매운맛을 대표하는 라면으로 굳건한 자리매김 필요
 - 독일에서 인기 있는 한국 라면은 대부분 매운맛 라면으로, 현지 시장에서 매운맛 라면(인스턴트 누들)의 대표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현지 유명인 및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SNS 내 매운 라면 먹기 이벤트, K-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 등의 활동을 통해 영국에서의 한국 라면에 대한 정체성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직관적으로 매운맛을 어필할 수 있는 제품 포장 및 홍보를 통해 한국 라면이 현지에서 매운맛 라면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음료류

- 저칼로리, 무알코올, 무첨가 음료 등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 출시
 -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며 건강음료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 현재 독일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음료는 과일 맛이나 향을 함유한 제품이 대다수이므로 제품의 유형 다양화 필요
 -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음료, 비타민 음료, 유기농 과채 음료 등 건강한 음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며, 무설탕 제품에 대한 소비도 확대되고 있어 건강·기능성 음료 출시를 통해 시장 내 비중 확대 가능
- K-Food의 건강한 이미지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 비건·유기농 등 관련 인증 취득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지속가능성, 건강, 친환경 등이 중시되며 관련 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 식품의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구축
 - 또한 비건 및 유기농 인증 등을 취득하여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음료 출시로 현지 니즈에 부합
 -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음료 소비 시에도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소비가 확대되며 포장재, 재활용 페트 등을 사용한 친환경 지향 음료가 인기이므로 이를 반영한 포장재 선택으로 현지 경쟁력 제고 가능

다.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 현재 특정 품목에 한정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여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출 도모
- 이에 현지 시장 트렌드와 소비 동향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변화하는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선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對독일 수출 유망품목 및 기대품목을 선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출 확대 방안 마련

- (유망품목) 현재 한국산 농식품 중 현지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비중이 높고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향후 지속적인 수출이 기대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
 - 현재 對독일 유망품목은 라면(인스턴트 면류)과 음료류로 선정되었으며, 라면의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 ▲건강을 내세운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음료류의 경우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 출시 ▲K-Food의 건강한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음료 출시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대품목) 현재 한국산의 비중은 높지 않으나, 현지 식품 소비 동향으로 미루어보아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품목으로, 수출 전략 품목으로의 육성이 필요

- 예를 들어 소스류의 경우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전통 장류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현지 식문화에 어울리는 소스류(BBQ 소스, 양념갈비 소스 등)를 주력 품목으로 선정하여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김치 역시 현지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수요 창출 예상

□ 현재 예고되어 있는 식품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숙지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수출 시 리스크 제거

- 비교적 식품 관련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며, 소비자 역시 식품 소비 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편
- 이와 더불어 향후 식품시장 내 규정 변화가 예고³³⁾되어 있고, 2021년 12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규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사전 대응 필요

33) 2025년부터 독일은 식료품의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함유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식품시장 내 규정 변화와 요구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